

25일 Market Index

↑ 코스피

6742.74

(+45.78)

↑ 코스닥

827.15

(+13.82)

↓ 금리

3.830

(-0.006)

↑ 환율

1386.15

(+3.75)

혼란의 세제·부동산 대책… “전면 손질” 반발

당정, 8·3 세제개편안 재검토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인정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상향 검토
용산·태릉CC·과천 등 주민반발
8·13 주택 신규 공급방안 ‘제동’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8·3 세제개편안’은 여론 악화에 재검토에 들어갔고, ‘8·13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서울 용산을 비롯해 염창공원과 태릉, 경기 과천 등 주요 후보지마다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국은 8·3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인정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은 비거주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 12억원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이와 함께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꿔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동시에 보유공제 한도도 오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했다.

만저 세제개편 관련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올라온 의견만 종부세법 관련 9370건, 소득세법 관련 4082건 등 총 1만3452건에 달한다. 특히 직장이나 부양 등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를 투기와 같이 취급한다는 불만이 컸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8·3 부동산 세제개편 ‘관심 집중’

25일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8·3 부동산 세제개편 세무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세무설명회는 서초구청이 주관하는 무료 세무 설명회다. /뉴스1

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고위당정협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의 경우 국회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 서면서다.

다만 실거주를 유도하는 기본틀은 바뀌지 않는 데다 개편안을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상 땀질처방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 역시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기 보다는 비거주 예외 조항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개편안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부동산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 매물은 증가한 반면 전세 시장은 물건이 급감했다. 세 부담을 우려해 주택을 팔기로 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8·13 주택 신규공급 방안도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신규 택지로 낙점한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를 포함해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용산과 태릉CC, 과천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거 환경 악화와 교통난 등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 시장은 오는 26일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회동에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한 가운데 오 시장은 “(용산공원) 1cm도 주거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내년 800조 예산 메가프로젝트 등 5대 분야 뒷받침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당정이 25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조성 등 5대 중점 분야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6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부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며 “프로젝트 성공의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 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예산처, 예산안 당정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정 효율 운용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 산업·일자리로 성과 이어져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추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을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면서 “또한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고 부연했다.

정태호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AI 총력 지원 외에 “전력·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중앙처리장치) 1만장을 공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30년 달 착륙과 관련한 연구개발, 자율주행차 시범 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의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과 관련해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해 인턴을 해도 학점으로 인정을 해줘서 졸업 전에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도입되고,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처리량 30배 ‘베라루빈’… 피크전력 13% 낮췄다

핫칩스 2026

루빈GPU 세부구조·실측결과 공개
삼성·SK HBM4 탑재, 전력감축 과제

엔비디아가 전력 사용량을 늘리지 않고 인공지능(AI) 처리량만 최대 30배 높은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의 실측 결과를 내놨다. AI 반도체의 경쟁 기준이 연산 속도에서 전력효율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다.

베라 루빈에는 HBM4(6세대)가 처음 탑재되는 만큼, 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전력 소모를 낮추는 것이 과제가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한국시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학회 ‘핫칩스 2026’에서 루빈 GPU(그래픽처리장치)의 세부 구조와 실측 결과를 공개했다. 엔비디아가 이날 앞세운 지표는 연산 속도가 아닌 전력당 처리량이었다. 여러 단계에 걸쳐 추론하고도 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 AI 작업에서 베라 루빈 NVL72는 전작인 GB300 NVL72보다 1메가와트(W)당 토큰 처리량이 10배에서 최대 30배 높게 측정됐다.

전력을 배분하는 방식도 함께 개선했다. 엔비디아는 구간별로 전력을 고르게 분산하는 ‘지능형 전력 스무딩’을 적용해 거대언어모델(LLM) 학습 시 피크 전력을 13% 낮췄다고 밝혔다. 여기에 GPU와 서버랙 단위의 최적화를 더하면 확보한

전력량 안에 GPU를 최대 40% 더 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지 않고도 연산 능력을 늘릴 수 있어,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사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전력이 기준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토큰 소모량 급증이 있다. 엔비디아가 인용한 오픈라우터 자료에 따르면 에이전트 작업은 일반적인 AI 이용보다 요청당 약 15배 많은 토큰을 소모한다.

처리할 데이터가 늘어나면 부담은 메모리로 옮겨간다. 가속기의 처리량이 커질수록 HBM에 요구되는 대역폭이 높아지지만, 대역폭을 키우면 소비전력과 발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해진 전력 안에서 성능을 끌어올려야 하는 만큼

메모리가 쓰는 전력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에서 대역폭과 전력효율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4일(한국시간) 열린 메모리 기술 튜토리얼에서 삼성전자는 로직 공정을 활용한 HBM4와 HBM4E(7세대), HBM5(8세대) 등 차세대 베이스다이의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베이스다이는 적층된 D램 하단에서 데이터 입출력과 전력을 제어하는 칩으로, HBM4부터 입출력 통로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늘면서 역할이 커졌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하루 10시간·주당 48시간…與 쿠팡 등 새벽배송 제한 절충안 입법 시도
▲장동혁 “李, 경찰 문제 잘 알면서 검찰 해체 밀어붙였나”
/사진 뉴스1

▲권영진, ‘당원권 정지’ 징계에 “부당하고 가혹…법적 대응 고민중”
▲대부분 가출이라는 연 7만건 ‘성인 실종’…작년 사망 900건 넘어

▲“스벅 가야지” 선창 배재고 야구부 2명, 선수 생활 포기
▲‘132년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 年120만원씩 지급

K-뷰티, 항노화 등 고기능성 진화... 소비자 일상 바꾼다

2026 서울뷰티위크

한국콜마, 융합과학 기반 기술 소개
고도화된 품질관리·제형 완성도 실증
2분기 최대 실적... 글로벌 사업 박차

한국콜마가 독보적인 화장품 제조 및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제약·바이오 기술을 화장품에 이식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앞세워 K뷰티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기존 선크어 시장의 절대 강자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제약 기술을 접목한 항노화 등 고기능성 영역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25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이달 23~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2026 서울뷰티위크'에 공식 파트너사로 5년 연속 참석했다. 올해는 '당신의 하루, 콜마가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전시 부스를 꾸리고 소비자 일상에 밀착된 혁신 기술을 공개했다.



'2026 서울뷰티위크' 한국콜마 부스에서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왼쪽)이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에게 한국콜마의 화장품 기술력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콜마

아침 스킨케어부터 낮의 선크어, 밤의 클렌징으로 이어지는 24시간 뷰티를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 전문 연구원이 제형 특징 등을 직접 설명하며 K뷰티의 최신 연구 성과를 알렸다.

우선 스킨케어 존에서는 차세대 피부 전달 기술 '더마핏 마이크로 히들'을 선보였다. 피부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활용하며 피부 자극은 최소화하고 유

효 성분 흡수율은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콜마는 그간 화장품 기술과 제약을 융합하며 화장품 연구개발 영역을 건강한 피부로 넓혀 왔다. 최근에는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과학과 이동원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성과도 공개한 바 있다. 제약 분야의 약물전달시스템(DDS)을 화장품에 접목하며 항노화에 근본적으로 접근

했다. 그 결과, 약물전달시스템과 표적 항암 치료 기전을 응용해 항산화 신소재 'T-OT'를 개발하기도 했다. 피부 속 노화 원인 물질인 과산화수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서울뷰티위크에서도 이러한 융합 과학 기반의 기술을 내놓는다. 선크어 존에서는 UV 카메라를 활용해 자외선 차단제 도포 전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하게 한다. 최신 뷰티 흐름에 발맞춰 두피 전용 선크어 제형도 자체 개발했다.

클렌징 존에서는 정밀 피부 분석 카메라로 제품 사용 전후의 세정력과 피부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고도화된 품질 관리 및 제형 완성도를 실증했다.

아울러 한국콜마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다각화함과 동시에 실적 상승세도 유지하고 있다. 한국콜마 별도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4304억원, 영업이익은 44% 늘어난 708억원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다.

제품별 매출 비중은 스킨케어가 49%,

선크어가 35%, 메이크업이 12% 순으로 기록됐다. 한국콜마는 올해 3분기 역시 스킨케어와 선크어 중심의 성수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MNC)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수주를 확보해 글로벌 선크어 사업자로 성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는 압도적인 제조·R&D 역량과 실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K뷰티 협업체제 구축에도 나선다. 이번 '2026 서울뷰티위크'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밋업 피칭 대회를 통해서도 유망 뷰티 스타트업과 교류한다. 해당 대회에는 한국콜마 스킨케어연구소장, 선크어연구소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콜마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K뷰티의 진정한 경쟁력은 뛰어난 브랜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개발·제조기업과 유통·플랫폼이 유기적으로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K뷰티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금융당국, 가계부채 총량관리 '선별방식' 전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 1.5%→3%
금융권 추가 대출공급 여력 30조 추산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일률적인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선별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자금 조달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주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추가 대출 공급 여력은 약 30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일

반 가계대출 목표와 분리해 별도의 유보분으로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이 대규모 입주단지의 잔금대출 등을 취급하더라도 해당 대출 증가분이 자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도 총량 관리 부담에서 일부 벗어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100% 제외하기로 했다. 총량규제로 인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우선적으로 축소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선별적인 총량관리 완화가 차주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에는 별도의 대출 여력이 제공되는 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늘어난 대출 여력을 실수요자와 취약차

주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인 만큼 일반 차주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가계대출이라도 자금 용도나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총량규제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미 기존 관리 목표를 넘어섰다는 점도 일반 대출 규제를 쉽게 풀기 어려운 배경이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651조151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1810억원 증가했다. 종전 연간 총량 증가 목표액인 4조3363억원을 1조8447억원 웃도는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출 공급 여력은 늘었지만 은행들이 일반 차주에 대한 영업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문턱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홈플러스, 관계인집회 임박... 공익채권 변제 등 변수 산적

회생 여부 여전히 불투명

기업회생절차 종료 시한을 앞둔 홈플러스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좌우할 관계인집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홈플러스는 영업 정상화와 이해관계자 동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8000억원에 육박하는 상거래 공익채권 변제 문제와 자가 점포 매각, 잔존사업부 인수합병(M&A)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회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첫 관문은 오는 9월 2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관계인 집

회다. 이날 채권자와 담보권자들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리·의결한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앞두고 협력사와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를 요청하며 배수진을 쳤다. 전·현직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연 지급 동의율은 이미 75%를 넘어섰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남품업체와의 갈등이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약 7939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남품대금의 구체적인 변제 자원과 시기를 회생계획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법원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에서 조달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중 일부를 기존 공익채권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반면 홈플러스는 DIP 대출금을 신규 상품 매입과 미지급 임금 정산 등에 우선 투입하며 영업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 자금책인 자가 점포 매각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영업 중인 67개 점포 가운데 자가점포는 38곳으로 신규 매각 대상 19개 점포 중 12곳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는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제때 적정 가격으로 매각될지 불투명하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전력기기 3사, 유럽 AIDC·친환경 시장 정조준

북미 수주경험 바탕 현지 수요 대응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북미에서 쌓은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의 노후 전력망 교체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친환경 전환까지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송·배전 전력기기 시장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6.55% 성장할 전망이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스마트그리드 투자,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가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은 유럽 내 공급 지역과 고객사를 넓히며 수주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의 올해 2분기 유럽 수주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현지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222.5% 급증했다. 유럽은 북미를 잇는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북유럽에서 약 2000억원 규모의 전력기기를 수주했다. 기존 거래처가 있는 핀란드와 노

르웨이에서 후속 물량을 확보한 데 이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신규 고객을 추가하면서 북유럽 공급 국가를 4개국으로 늘렸다.

LS일렉트릭은 올해 초 독일 에너지기업 RWE와 620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시장에 진입했다. 2027년까지 독일 서부에 조성되는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발전소에 400킬로볼트(kV)급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한다.

국내 업체들은 유럽 내 수주를 후속 계약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지 전력망 수요와 유럽연합(EU)의 불소계 온실가스(F-gas) 규제에 맞춘 제품군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대전력망협의회(CIGRE) 파리 세션 2026을 통해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GIS)와 HVDC 등 차세대 기술을 선보였다.

친환경 GIS 분야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나란히 신제품을 공개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420kV급 친환경 GIS 'GREENTRIC 550SRE'를 선보였다. 효성중공업도 독자 기술로 개발한 스프링 타입의 420kV급 육불화황 무사용 GIS를 처음 공개했다.

/원관희 기자 wkh@

업계, HBM 공급경쟁 '전력효율' 이동 관측

>> 1면 '처리량 30배 베라루빈'서 계속

SK하이닉스는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심해지는 열과 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첨단 패키징을 발표했다. 같은 과제를 놓고 삼성전자는 설계로, SK하이닉스는 패키징으로 접근한 셈이다.

업계는 HBM 공급 경쟁의 승부처가 용량과 속도를 넘어 전력효율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랩 단위로 성능을 계산하는 구조에서는 메모리가 쓰는 전력

이 곧 시스템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엔비디아는 AI 추론(학습한 AI가 실제 답을 만드는 과정)에 특화된 가속기 '엔비디아 그록3 LPX'가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공개한 공식 자료에서 "추론은 AI 성장의 엔진"이라며 "베라루빈은 에이전트 AI 시대에 맞춰 작업별로 최적화된 AI 팩토리 구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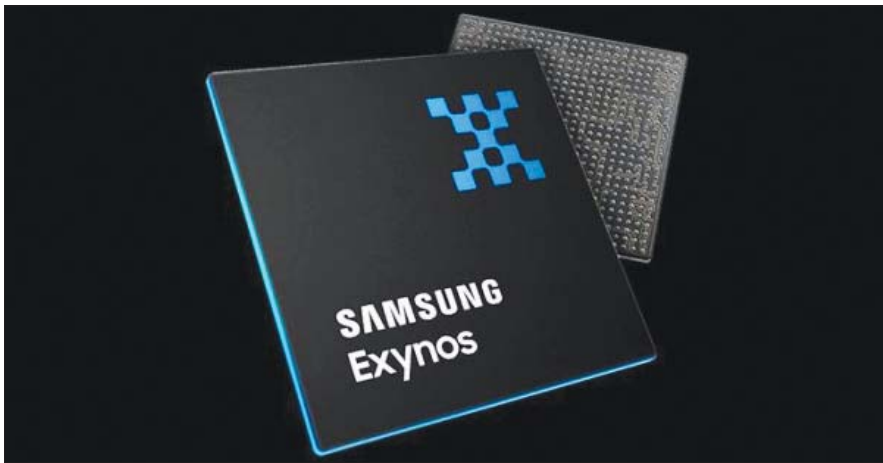
퀄컴칩·메모리값 상승… 삼성, ‘엑시노스’ 구원투수 될까

엑시노스 2700 성능평가서 우수
CPU·GPU·AI·전력효율 앞서
외부 AP 매입액 7조4383억
자체칩 확대 땀 원가 절감 기대
양산 성능·2나노 수율에 관건

삼성전자의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700’이 내부 성능 평가에서 퀄컴의 차세대 AP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와 외부 AP 가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갤럭시S27의 엑시노스 탑재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MX사업부가 최근 차세대 AP ‘엑시노스 2700’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내부 벤치마크에서 엑시노스 2700이 CPU와 GPU, 인공지능(AI), 전력 효율 등에서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각벤치 6.5 기준 CPU 멀티코어 성능은 엑시노스 2700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보다 19%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최상위 제품으로 거론되는 프로 모델과 비교해서도 9.5% 높았다. GPU는 최대 성능에서 프로 모델을 5% 앞섰고, 2.5W(와트) 저전력 환경에서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대비 각각 24%, 22%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 AI 답변 생성 속도도 프로 모델보



삼성전자 엑시노스 심벌.

/삼성전자

다 18% 빨랐고, 전력 소모 측정치는 161mA로 프로 모델의 185mA보다 12.7% 낮았다.

최근에는 엑시노스 2700으로 추정되는 엔지니어링 샘플도 각벤치 AI 데이터베이스에서 포착됐다. 해당 시험용 칩의프라이미 코어는 최대 4.24GHz로 작동했다. 지난 4월 포착된 시험용 칩의 클럭이 2.30~2.88GHz 수준으로 제한됐던 것과 비교하면 동작 속도가 크게 높아졌다. 다만 시험용 칩의 고클럭 구현만으로 실제 양산 제품의 성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엑시노스의 경쟁력 회복 여부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삼성전자MX사업부의 원가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퀄컴과 미디어텍 등에서 사들인

모바일 AP 규모는 7조43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6% 증가했다. DX부문 전체 원재료 매입액의 17.9%에 해당한다.

퀄컴의 가격 인상 움직임도 원가 부담 요인이다. 퀄컴은 오는 9월부터 스마트폰용 칩 가격을 두 자릿수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7월 반도체 업계의 비

용 상승을 언급하며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메모리 가격 상승도 부담이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외부 모바일 메모리 매입액은 5조426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보다 약 211%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외부 업체에서 조달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MX사업부가 DS부문에서 공급받는 내부 거래 물량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엑시노스 2700이 양산 단계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갤럭시S27 시리즈에서 탑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자체 AP 비중을 높이면 퀄컴 등 외부 업체에서 구매하는 AP 물량을 줄여 원가 부담을 낮출 여지가 생긴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에도 긍정적이다.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가 설계하고 파운드리사업부가 생산한다. 엑시노스 2700은 삼성 파운드리 2세대 2나노 공정인 ‘SF2P’를 기반으로 생산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27 탑재 물량이 늘어나면 시스템LSI의 AP 사업 확대와 함께 파운드리 2세대 공정 물량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양산 단계에서의 성능과 수율이다. 현재 알려진 성능은 내부 테스트와 엔지니어링 샘플을 기반으로 한 만큼 실제 스마트폰에 탑재됐을 때 같은 수준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유지할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도 갤럭시S27의 AP 구성이나 엑시노스 2700의 탑재 범위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엑시노스 2700의 경쟁력은 갤럭시의 원가 부담뿐 아니라 삼성의 2나노 공정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내부 벤치마크보다는 양산 단계의 수율과 실제 제품에서의 발열·전력 효율 등이 갤럭시S27 탑재 확대를 가능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손질 전세 숨통·집값 자극 ‘딜레마’

기본공제 9억 상향 조정 검토
현행 12억 수준 복원도 거론
세 부담 완화 땀 전세 감소 제동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일부 손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세 부담을 완화하면 집주인의 실입주를 줄여 전세 매물 감소를 막을 수 있지만, 주택을 처분할 유인까지 약해져 매매 매물이 줄고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25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9억원보다 높이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 실거주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근이나 자녀 교육, 부모 병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안에도 학교·직장·질병 등에 따른 비거주 기간을 일정 요건 아래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적용 요건과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완론에 힘이 실린 배경에는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도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는데, 이는 전세 물건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3일 이후 2만800건에서 2만402건으로 1.9%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매물은 늘어난 반면 전세 물건은 줄면서 두 시장이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초구에서는 매매 매물이 12.7% 늘어나는 동안 전세 물건이 5.6% 줄었다. 송파구에서도 매매 매물은 12.7% 증가했지만 전세 물건은 10.9% 감소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갓고 있는 물건이 한 건에 그칠 만큼 전월세 매물 싸가 말랐다”며 “일단 직접 거주해 요건을 채운 뒤 주택을 팔겠다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전세 물건이 줄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월 둘째 주 0.20%, 셋째 주 0.19%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2주 연속 하락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를 필요성이 줄어 전세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매도 유인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보유 부담 때문에 나온 매물이 회수되거나 매도자가 호가를 높인 채 시장을 지켜보면 매매가격이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metro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과
안전을,건강을,사랑을

함께,
미약속

나에게 맞는 간편건강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펫들이 반려견·반려묘 보험



QR코드를 스캔해
상품을 확인하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71954호(2026.02.26~2027.02.25)

부산·경산·광주에 3년간 2.7조 투입... '더현대 DNA' 입힌다



㉓ 현대백화점그룹

HYUNDAI



- ① 더현대 서울 풍경. ②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③ 현대백화점이 일본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지인 도쿄 오모테산도에 선보인 K콘텐츠 수출 플랫폼 '더현대 글로벌'. ④ 더현대 광주 조감도.
⑤ 더 현대 하이 콘셉트 사진. /현대백화점그룹



보수적인 '돌다리 경영'의 대명사였던 현대백화점 그룹이 유례없는 광복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핵심 동력은 여의도 더현대서울의 성공으로 입증된 '더현대 모델'이다. 현대백화점은 탄탄한 백화점 본업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약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 출점 투자를 단행하며 오프라인 영토 확장에 나섰다.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며 신사업 추진 동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이러한 공격적인 확장 이면에는 미국발 불확실성으로 적자의 늪에 빠진 지누스와 수익성이 둔화된 한섬 등 비(非)백화점 계열사의 부진이라는 뚜렷한 과제도 병존한다.

현대백화점의 자신감은 백화점 본업의 견조한 실적에서 출발한다. 현대백화점 백화점 부문은 최근 2분기 매출 6438억원, 영업이익 1101억원(별도 기준)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명품 및 패션 카테고리의 호조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이 주도한 큐레이션 중심의 '더현대 DNA'가 전 점포로 확산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부문에서만 연간 5000억원 인파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는 10여 년 만에 백화점 단독 이익 4000억원 벽을 깨고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는 셈이다.

본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是大규모 신규 투자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부산(총투자비 9183억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경산(3580억원), 더현대광주(1조4547억원) 등 3개 대형 프로젝트에 총 2조7310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 말까지 7540억원이 이미 집행됐으며, 2027년 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 경산, 2029년 광주 개점까지 향후 1조9770억원의 투자가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현대백화점의 재무 여력을 감안할 때 외부 차입 의존 없이 자체 현금흐름으로 잔여 투자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대백화점의 최근 3년 평균 영업

2분기 매출 6438억, 영업이익 1101억
소비 회복, 외국인 관광객 등 영향

외부 차입 없이 자체 현금 흐름으로
투자금 소화... 재무 건전성 'AA+'

온라인 '더현대 하이', 23만명 가입
지누스·한섬 수익성 악화는 '난제'

흐름은 8260억원에 달하며, 2025년에는 9862억원까지 늘어났다. 연간 약 500억원 수준의 배당금 지출을 차감하더라도 2029년까지 4년간 약 3조1040억원의 영업현금이 유입된다. 여기에 1조4352억원에 이르는 가용 유동성까지 합치면 투자 대응 재원은 4조 5392억원에 달해 잔여 투자액의 2.3배를 웃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순차입금 비율도 1.3배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재무 건전성은 최고 등급(AA+)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체력을 바탕으로 현대백화점은 온·오프라인과 글로벌 전방위로 영토를 넓히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내 최초 미래형 문화복합몰을 표방하는 더현대광주 등을 통해 수도권을 넘어 전국 핵심 거점에 경험형 리테일 모델을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는 더현대닷컴과 현대식품관 투융을 통합 개편한 프리미엄 큐레이션 플랫폼 '더현대 하이'를 론칭해 한 달 만에 신규 가입자 23만 명을 끌어모으며 순항 중이다. 해외에서는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K패션 수출 플랫폼 '더현대 글로벌' 첫 매장을 열어 목표치를 30% 웃도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거점 확대에도 시동을 걸었다.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의사결정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인 현대홈쇼핑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마쳤다.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손자회사였던 현

대큐처넷, 한섬, 현대L&C 등을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와 함께 자본배분의 유연성과 M&A 추진력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본업과 지배구조의 안정세 뒤편에는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한 신성장동력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이 드리워져 있다.

현대백화점이 2022년 약 8790억원을 들여 인수한 글로벌 매트리스 제조사 지누스는 최대 난제로 꼽힌다. 지누스는 미국 매트리스 시장 침체와 관세 불확실성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567억원의 누적 영업 손실을 내며 그룹 편입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현대백화점이 인수 후 지누스에 대해 인식한 영업권 및 브랜드가치 손상차손만 총 4997억원으로, 인수 대금의 56.8%에 달한다. 현재 지누스는 미국 조지아 공장을 1353억원에 매각하고 인도네시아 중심의 생산 체제로 전환하며 고정비 절감에 나섰다. 만, 뚜렷한 턴어라운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012년 인수한 패션 계열사 한섬 역시 외형 성장 뒤에 가려진 수익성 악화로 고심하고 있다. 한섬의 매출은 인수 당시 5000억원대에서 1조5000억원 규모로 3배 성장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012년 14.3%에서 지난해 3.5%까지 급락했다. 패션업계 불황과 함께 신규 브랜드 론칭 및 해외 진출 비용이 누적된 결과다. 신사업으로 추진했던 화장품 자회사 한섬과 이프앤 역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끝에 지난해 한섬에 흡수합병되는 부침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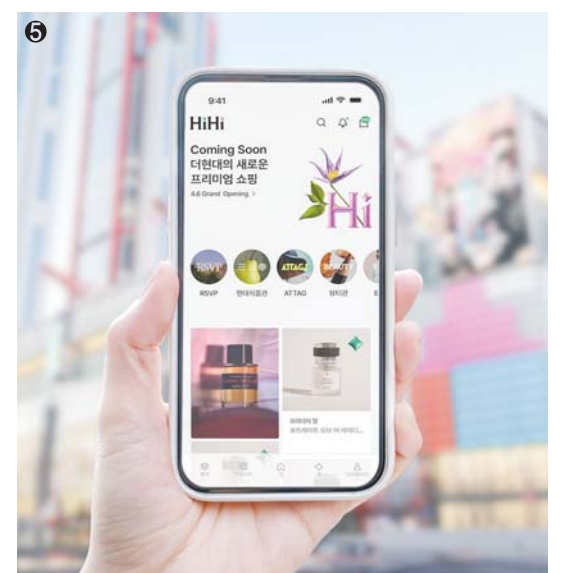
현대백화점그룹의 미래는 백화점 본업이 벌어들이는 강력한 현금 창출력이 유지되는 동안, 대규모 신규 출점을 차질 없이 인수하고 부진한 계열사들의 구조적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탄탄한 재무 체력과 검증된 콘텐츠 경쟁력으로 무장한 정지선 회장의 공격적인 확장이 참채된 계열사의 부담을 털어내고 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지 유통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kt

남의집
귀한가족신변4
사보타주 (SABOTAGE)

야구야구2

나는
자연인이다

결혼의 완성

탐정들의
영업비밀

악티비스트

나는
SOLO금쪽같은
내새끼미운
우리새끼

왕과 새끼

어쩔수가없다

무한도전

하트시그널5

그대에게 드림

김부작

요즘은

GENIE TV 모든 G 로

다 봅니다

실시간 채널, TV 인기 드라마, 예능, 매주 최신 영화까지

인기 드라마 예능은 지상파 3사 및 종편 4사 콘텐츠가 제공되며, 제휴사 사정에 따라 일부 타이틀 업데이트 시기가 다르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니 TV 모든G' 가입 시 서비스 이용료 월 19,800원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포함,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모든G 전용메뉴 외 콘텐츠 이용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KT.COM 참조

수도권 집값 해법은 ‘공급’…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 급부상

예결특위서 여야 공급 확대 공감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요구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론도 등장

정기권에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다수 나왔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 지 관심을 모은다.

◆허종식 與 의원 “공급 외 어떤 대책도 먹히지 않는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서 “총 가구 중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66%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늘었다”며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주택이 필요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일본 도쿄를 보면 도심이고 밀집해 매년 13만~15만 가구를 끊임없이 공급한다”며 “재개발·재건축도 빨리 하게 해줘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말도 맞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을 전제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 않는 어떠한 대책도 먹히지 않는다”며 “집이 없는데 규제가 먹히나.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한 허 의원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에게 “용산공원 녹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인가 안 짓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이탁 차관이 “짓지 않는다”고 하자, 허 의원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野 의원 “새 물량 나오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1세대 1주택 실거주를 의무화하면 물량이 잠긴다”며 “저도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전세를 살다가 전세 버리고 멀리 있는 본가로 들어가서 시장에 물량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새 물량이 나온다”며 “정부는 그런 것을 잘 하지 않더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김이탁 차관에게 “최근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만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을 마련했지 않나”라며 “(민간에) 건폐율 완화는 쉽지 않으니 용적률을 조금만 완

화시키면 좀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데, 왜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하자 송 의원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없으면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줄 생각 있나”라며 “이에 대한 두 가지 대책을 말해 보라”고 물었다.

한 총리가 이주비 지원 대책을 말하자 송 의원은 “그건 부차적 문제”라며 “공급이 확대되는 중에 이주비 지원을 하면 집을 더 빨리 비우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근 與 의원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해도 비싸서 청년 못 들어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 말대로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청년 혹은 신혼부부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정비사업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청년 주택이 공급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한성숙 총리는 “지금 현재 가격이 나 여러 조건으로 본다면 청년주택 관련 부분은 쉽지 않아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이 4분의3이고 4분의1정도가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가가 15억~20억원 정도 된다”며 “청년 주택도 재개발·재건축만 열심히 활성화하면 된다는 오 시장의 이야기는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청년 대책은 별도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만 맡겨놓을 수 없어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 용산공원의 기능이 훼손된 장교 마사, 캠프킴 등은 주택 공급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李 “재정 여력, 미래 위한 씨앗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 성장·국민 삶 개선에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에 대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지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정부 재정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심어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환해야 되겠다”며 재정 건전성 관리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

입해서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 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경찰개혁 기구 검토 지시

실종사건 부실 대응에 경찰개혁 급부상

제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부실 대응을 두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개별 사건 대응 미흡에서 그치지 않고 경찰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정부여당에도 불뚝이 치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오는 10월부터 전면 폐지되는 만큼, 그 전에 경찰의 수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면서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실태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와 수사체계 쇄신을 주문했다.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총리실이 나서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도 경찰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찰개혁추진단’ 단장으로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경찰개혁추진단 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오세훈·한동훈, 장동혁 체제에 쓴소리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참석
“당원보다 국민, 분열보다 통합”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국회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국의 대(大)전략과 한국의 선택: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미래혁신포럼은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의 의원 공부모임이다. 이날 세미나는 흥태와 미국 외교정책 연구소 연구원이 강연을 맡았다.

김기현 의원은 장 대표가 내세운 ‘당원 중심 정당’에 대해 “한 때는 당원 중심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런데) 요즘 보니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아 과도한 당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축을 좀 옮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은 “외교도 결국 보수 정치가 재건돼서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데서 바로잡을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아까 김기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온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장동혁 체제의 1년에 대해 “당(국민의힘)이 퇴행했고,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막아내야 하는 우리(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형위원장 재선거를 두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쟁력을 올리는 데 도움 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뽕샘·나룻샘의 정치보다도 뗏샘·곱샘의 정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李-민주당 지도부 만찬… 당정 소통 강화

김민석과 두번째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에 이어 옛 새 만에 다시 만난 셈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 5인, 한정에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

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를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부비서관, 강유정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 대표와 함께 8·17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원 주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은행 거래부터
주식 투자까지 한번에

신한 super SOL만의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

SOL LINK

슈퍼SOL에서 SOL LINK로 주식거래하고
테슬라 당첨의 기회까지
(조건 충족 시, ~9/30)



SOL LINK
개설하기



이벤트
바로가기

[공통]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입니다.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는 상호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물 유효기일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신한은행]** ※SOL LINK는 은행 계좌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증권투자 업무도 가능한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복합연계 상품입니다. ※신한 SOL LINK는 만 19세이상 국민인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율: 0.1% (2026.6.17 현재, 세전), 예금의 이자는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 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평일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에 문의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 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82276% ~ 0.1891639%(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제휴채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입니다. ※테슬라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문의는 신한투자증권(02-3772-2220, 평일 오전 9시~ 오후 5시)에 문의 바랍니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의 사정 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사전 안내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고객 및 당첨고객 제외)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1206호(2026.07.01 ~ 2026.09.3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3172호 (2026.07.01 ~ 2027.06.30)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예금보험료를 인상 예고… ‘비용 증가’ 2금융권 중심 긴장감

2028년부터 새 예보료를 적용
금융권-예보, 민관합동 TF 가동
업권·전문가 논의, 예보료를 결정
업계 “저축은행, 이미 은행의 5배
다시 인상시 체감부담 커” 반발

금융권의 예금보험료를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2028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예보료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업권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외부 연구용역에서는 은행부터 보험·저축은행까지 전 업권의 예보료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제시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인상 폭이 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용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금융권 예보료를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보는 최근 한국금융학회에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를 재산정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계량모형을 활용해 각 업권의 예보료를 적정 수치를 도출했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뉴스시스

예보의 외부 연구용역 계량모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현행 0.40%에서 0.54%,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인상하는 안이다. 그 외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은행은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다.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매년 예보에 예금보험료와 예보채상환 특별기여금을 납부한다. 예보료는 매년 예금잔액(보험사는 책임준비금)에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특별기여금은 별

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추가 산정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수치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 참고용”이라며 “최종 예보료율은 향후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가 예보료를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데다 내년 예보채상환 특별기여금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예보채상환 특별기여금은 금융회사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 자

금을 상환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실제 예보 측은 내년에 특별기여금 종료되는 만큼 이번 예보료를 인상이 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2금융권은 특별기여금이 종료돼도 이번 요율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예금 등을 기준으로 예보에 납부하는 비용인 만큼 요율이 올라가면 금융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것.

보험사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자본과 수익성 관리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예보료까지 크게 늘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상품 가격과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손보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연구용역안대로라면 예보료율이 0.15%에서 0.50%로 뛰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2023년 도입된 IFRS17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구조 변화를 현재 연구모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보험사의 실제 부실 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요율을 크게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

장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에도 업권 중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 왔는데, 이번에도 0.54%로 가장 높은 요율이 산정됐다. 0.54%면 예금자보호법상의 예보료를 상한선인 0.5%도 초과하는 범위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0.40%)은 이미 은행(0.08%)의 다섯 배에 달하는 최고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인상하는 것이어서 체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기여금 종료로 부담이 완화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료가 특별기여금의 네 배라 다른 업권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예보료는 규정상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도 없어 고스란히 손익으로 감당해야 하는 만큼, 남은 TF 논의 과정에서 업권별 실질적인 부담 구조의 차이가 충분히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예보는 올해 연말까지 업권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예보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원화값 두달만에 11% 급등 ‘나홀로 강세’

원·달러 환율 1386.1원 주간 마감
수출기업 외화 매도, 금리인상 영향
엔화·유로화 대비해서 9%대 상승

‘역대급 약세’를 지속하던 원화값이 최근 급등했다. 지난 7월 초 달러당 1560원 수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1380원까지 내리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값은 2개월 만에 9~11% 올랐다. 수출기업들의 외화 매도가 이어지면서 2분기 환율 상승의 주 요인이었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됐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면서 원화 강세를 부추긴 영향이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86.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종가보다 3.7원 올랐지만, 3거래일 연속으로 1380원대에 거래되며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했다.

지난 7월 2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55.8원을 기록했다. 최근 환율과 비교

하면 달러화 대비 원화값은 약 8주 만에 10.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엔화 대비 원화값은 약 9.2%, 위안화 대비 원화값은 약 10.2% 올랐다. 유로화 대비로는 약 9% 올랐다.

최근 원화값이 급등한 배경은 수출기업들의 달러가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는 것이 꼽힌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수출기업의 누적 수출액은 5952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3분기 내에 지난해 총 수출규모인 7097억달러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올해 1~7월 누적 무역흑자는 1680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341억달러 증가한 규모다.

지난 7월 금리인상 이후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한국은행과 미 연준의 금리 전망이 엇갈린 것도 원화값이 강세인 이유다.

한은은 지난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미 연준은 7월 금리를 동결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소 잦아들었으며, 고용 시장도 빠르게 얼어붙어서다. 한·미 양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차도 1.0%p로 줄었다.

최근에는 한·미 양국 중앙은행의 금리차가 더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내 경제지표 악화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은은 오는 27일 개최하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주요 기업들의 달러 환전 움직임이 축소하고 있고, 미국 내 불확실성도 확대하고 있어서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움직임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한·미 금리 역전폭 축소가 이어진 가운데 수출호조로 구조적 수급요건도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GS건설, 기후위기 대응 ‘미래형 주거’ 연구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 공동
거주자 건강·안전위한 솔루션 초점

GS건설이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 등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주거 솔루션 연구에 나섰다.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Carlo Ratti)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Carlo Ratti Associati)와 함께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과 CRA는 공동으로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주요 기후변수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주거환경을 분석하고, 여기에 CRA의 데이터 분석 및 센서 기반 설계 역량과 GS건설의 주택 시공·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GS건설은 이번 CRA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형 주거 개념을 도출했다. GS건설은 현재는 개념 단계인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에



CRA와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 공동 연구에 따른 솔루션 예시 이미지. /GS건설

대한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차주당 신규 가계대출액 3년여 만에 최소

한은,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차주당 신규취급 3414만원, 3.6% ↓
40대 583만원 줄어 감소폭 가장 커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올해 2분기 대출자 한 명이 새로 빌린 가계대출 금액이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2000만원 넘게 줄었지만 기존 대출을 포함한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79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14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28만원(3.6%) 감소했다.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은 금액이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신규취급액이 3588만원으로 전분기보다 583만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30대도 4908만원으로 274만원 감소했다. 반면 20대는 2056만원으로 260만원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780만원으로 193만원 감소했다. 서울은 4818만원에서 4347

만원으로 471만원 줄어 2023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동남권도 193만원, 충청권은 110만원 감소했다. 호남권은 113만원 증가한 2871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상호금융과 신탁,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차주당 신규취급액은 2791만원으로 한 분기 만에 1439만원 급감했다. 반면 은행권은 342만원 늘어난 5013만원이었다.

한은은 전체 신규취급액 감소에 대해 “금융권의 대출관리 강화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억 829만원으로 전분기보다 2110만원(9.2%) 감소했다. 2024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도 1억4535만원으로 577만원 줄었다. 신용대출은 1970만원으로 47만원 증가했다.

주담대 감소는 주택 구매 수요가 많은 30~40대에서 집중됐다. 40대의 차주당 신규주담대는 2억977만원으로 3537만원 줄었고, 30대도 2억6358만원으로 2632만원 감소했다.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1281만원, 1069만원 줄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거제·통영 수해 복구에 1.6억 상당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적십자사 공동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1억6000만원 규모의 성금과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추진됐다. 피해가 큰 거제시와 통영시에 각각 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6000만원 상당의 생수 12만 병을 지원한다. 성금과 생수는 피해 주민의 생활 지원과 지역 복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복구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으로 구성된 ‘MG따숨봉사단’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거제 지역 아파트를 찾아 지하 주차장에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고 배수 작업을 돕는 등 현장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과 현장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주요기업 임단협 ‘진담’… 성과급·정년연장 등 갈등 고조

현대차 노사 잠정합의안 마련 성공
SK하이닉스 잠정합의안 투표 부결
금호타이어 재교섭 일정 논의 예정
HD현대중 노조 파업 찬반투표 진행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통상 전년도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이 경기불황 여파로 대기업별, 계열사별, 사업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과급과 정년 연장 등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제17차 단체교섭을 시한을 넘겨 이어간 끝에 가까스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급 400%와 일시금 1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이 담겼다. 신규 인원 500명 충원,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하기휴가비 인상 등도 포함됐다. 1인당 약 4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별도로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기술직(생산직) 500



현대차 노사가 지난 5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6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교섭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7월 이후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감소뿐 아니라 부품 협력사의 가동률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 등 추가적인 생산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반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HD현대중공업 등은 노사간 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성과급 자사주 지급'을 골자로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임직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7535표(50.08%), 찬성 7510표(49.92%)로 부결됐다. 기술사무직노조의 표결 결과가 향후 성과급 개편과 노사 논의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게 됐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

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자사주 40%는 당해 연도 수령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0%씩 자사주를 이연해서 주는 방식이다. 당초 이번 잠정합의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25일 오전 9시 마감한 조합원 투표가 반대로 부결되면서 노사는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뒤 사측과 재협상에 나선 전례가 있다. 찬반 표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 합의를 통해 타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잠정합의안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넘지 못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투표에서 투표자 2871명 중 잠정합의안 중 '임금협상'에 대해 1303명(45.39%), 단체협약안은 1320명(45.97%)이 찬성에 두 안건 모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투표율은 86.76%였다. 앞서 노사는 기본급 3% 인상과 경영

성과 격려금 550만원, 2018년 특별합의 이행 격려금 250만원, 근로장려금 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조만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과의 재교섭 일정과 파업 돌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전체 조합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 찬성 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역대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

노사는 6월 2일 임단협 상견례를 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성과 공유, 휴가비·축하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 신규 채용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한국산 철강제품, 유럽·美 수출량 ‘극과 극’

50% 수준 고율관세 등 수출 영향
전년대비 유럽 45%↓·美 186%↑

한국산 철강제품의 유럽연합(EU)항 수출이 급감한 반면 대미 수출은 크게 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양쪽 모두 50% 수준의 고율 관세 장벽이 막고 있지만, EU에서는 새 철강 규제 시행을 전후해 물량 조정이 이어진 반면 미국에서는 건설용 철강재 수요와 높은 현지 가격이 수출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 EU 철강제품 수출량은 18만9048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8% 감소했다. 지난 3월 30만7668톤으로 15% 늘었으나 4월(-17.5%), 5월(-15.1%), 6월(-15.2%)에 이어 감소폭이 확대됐다.

EU는 지난 7월 전체 철강재 무관세 쿼터를 46%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렸다. 한국산 전용 쿼터는 협상을 거쳐 258만1000톤에서 207만3000톤으로 19.7% 줄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 활용할 수 있는 공용쿼터 약 147만5000톤도 운영된다. 보호무역 강화가 예고된 이후 일부 철강사가 최종 쿼터 확정에 앞서 해상 운송과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수출 물량을 조정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대미 철강 수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철강재 수출량은 53만8474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했다. 6월에도 40만 6902톤으로 70% 늘었다. 지난해 월 20만 톤 안팎이던 대미 수출량은 올해 1월 38만 7191톤으로 늘어난 뒤 5월까지 30만톤대를 유지했다. 이후 6월 40만톤을 넘어 지난달에는 50만톤을 돌파하며 최근 1년 반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 증가에는 미국 내 건설용 철강재 수요와 높은 현지 가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AI 데이터센터 등 건설 투자 확대로 철근·형강 수요가 늘어난 데다 현지 철강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50% 관세 부담에도 수출 여력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다른 철강 수입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한국산의 상대적인 수출 여건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 공급국인 튀르키예산 철근에 대한 상계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난 3월 알제리산 철근에는 127.32%의 반덤핑 관세가 확정됐다. 불가리아·이집트·베트남산 철근에도 올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출 감소만으로 EU 규제의 영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역시 고율 관세 인상 직후인 지난해 7월 대미 철강 수출액이 2억3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6%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5억3700만달러까지 늘었다.

이재윤 철강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은 현지 가격이 높아 50% 관세를 부과해도 수출할 여력이 있지만 유럽은 한국산 대비 2배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그 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LG이노텍, AI 분야 등 미래사업 인재 확충

美 LA에서 ‘이노 커넥트’ 채용 행사

LG이노텍이 퍼지컬 AI와 반도체 기반 등 미래 성장사업을 이끌 연구개발(R&D) 인재 확보에 나섰다. 미국 주요 대학의 석·박사급 인재들과 접점을 넓혀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할 인재 풀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G이노텍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인재 채용 행사 ‘이노 커넥트’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민준 최고기술책임자(CTO·상무)와 이동훈 최고인사책임자(CHO·상무)를 비롯해 주요 R&D 임원들이 참석했다. 스탠포드대와 캘리포니아공과대(Caltech), 예일대,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등 미국 16개 대학에서 석·박사 및 경력 인재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을 아

우르는 퍼지컬 AI를 비롯해 첨단 패키징, 차세대 광학 등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LG이노텍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퍼지컬 AI와 반도체 기반 사업 등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다.

LG이노텍은 최근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춘 신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퍼지컬 AI와 반도체 기반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관련 기술 및 사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LG이노텍 연구원들이 참가자들의 전공에 맞춰 최신 기술 동향과 회사의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경영진과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는 ‘AMA(Ask Me Anything)’ 세션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LG이노텍의 기술 경쟁력과 인재 육성 방향, 전문가 성장을 위한 지원 제도 등을 공유받았다.

/차현정 기자

SK케미칼, ‘스카이펠’ 적용 범위 확대

침구 전문기업 센스맘 사업협력 MOU

SK케미칼이 자사 스페셜티 소재인 ‘스카이펠’의 침구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올레핀 계열 소재를 스카이펠로 대체한 베개를 상용화한 데 이어 방석과 매트리스 제품 개발에 나선다.

SK케미칼은 침구 전문기업 센스맘과 지난 24일 인천 남동구 센스맘 본사에서 ‘SK케미칼-센스맘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센스맘의 프리미엄 브랜드모아가 생산하는 침구류에 스카이펠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앞서 스카이펠을 내장재로 사용한 베개를 개발해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앞으로 방석 상용화와 매트리스 적용을 추진하면서

제품별 특성에 맞는 소재 물성과 생산 공정을 공동으로 최적화할 예정이다.

스카이펠은 고무의 유연성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강도를 갖춘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탄성체(IPEE)다. 기존 올레핀 계열 소재보다 탄성 회복력과 내열성이 높아 반복적인 압축과 세탁 이후에도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온돌과 같은 고온 환경에서도 물성 변화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SK케미칼은 베개 개발 과정에서 소재 공급뿐 아니라 압출 공정 최적화와 건조 조건 개선, 설비 조건 검토, 용도별 물성 설계 등을 지원했다. 제품화 전 과정에 기술 지원을 제공해 스카이펠 내장재의 품질 안정화와 상용화를 뒷받침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세계 최초 6K 게이밍 모니터 선보인다

게임스컴 참가… 오디세이 G8 등 전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에서 모니터부터 TV·스마트폰·SSD·헤드셋까지 아우르는 게이밍 생태계를 선보인다. 신제품 공개와 함께 PC·콘솔·모바일을 넘나드는 게임 환경을 구현하며 글로벌 게이밍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현지시간) 독일 쾰른 메세에서 개막하는 ‘게임스컴 2026’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1090㎡(약 330평)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게이밍 모니터부터 TV·모바일·SSD·헤드셋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올해 전시는 ‘#PlaySamsung’을 슬로

건으로 ▲오디세이 존 ▲갤럭시 존 ▲게이밍 허브 존 ▲T1 존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오디세이 존에서는 ▲세계 최초 6K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8’ ▲최대 240Hz 주사율의 4K OLED ‘오디세이 OLED G8’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 등 주요 게이밍 모니터 라인업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올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 ‘필라미스의 붉은사막’, ‘사이버펑크 2077’ 등 글로벌 인기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고성능 SSD ‘9100 PRO’와 글로벌 토너먼트급 오디오 성능을 갖춘 ‘JBL 퀀텀 950’ 헤드셋도 함께 전시해 게이밍 기간 연계 경험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모델이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6’에서 ‘올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 체험존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존에서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탑재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와 ‘갤럭시 S26 울트라’ ▲저지연 게이밍 모드를 지원하는 ‘갤럭시 버즈4 프로’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초고속 포터블 SSD 신제품 등을 선보인다.

/차현정 기자 hyeon@

전기차부터 로보택시·드론까지… ‘미래 모빌리티’ 총출동

르포

‘퓨처 모빌리티 워크’ 개막

전기차·자율주행·무인이동체 통합 친환경차·충전 인프라 기술 공개 자율주행 트럭·로보택시 경쟁 박차 드론·방산로봇 듀얼유즈 기술 전시 AI 모빌리티 제도·산업 기반 논의

친환경 자동차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 드론과 로봇까지 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문을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주최한 이번 ‘2026 퓨처 모빌리티 워크’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해 사흘간 열린다. 올해 행사는 전기차 전문 전시회인 ‘EV트렌드코리아 2026’과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6)’, 그리고 드론과 방산 로봇 기술을 아우르는 ‘2026 무인이동체 X 민군협력 엑스포(UWCX CIM EX 2026)’를 통합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6을 찾은 시민들이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로 꾸러졌다.

EV트렌드코리아 현장에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선보인 친환경차가 눈길을 끌었다. 기아는 패밀리 전기 SUV ‘EV5’와 소형 SUV ‘EV3’, PBV(목적기반차량) 전용 모델인 ‘PV5 패신저’를 선보였다.

KG모빌리티는 액티언 하이브리드와 무쏘EV를 출품해 실용성을 앞세웠다. 볼보 플래그십 전기 SUV ‘EX90’과 전기 세단 ‘ES90’, BMW의 전기 SAV ‘더 뉴 iX

3’ 등을 전시했다. 특히 BYD 전시장은 가솔린 연료 완충 시 총 주행가능거리가 1000km를 넘어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SUV ‘썬라이언 6 DM-i’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EV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생 체험관’도 눈길을 끈다. 홈, 오피스, 캠프, 시네마 등 8개 테마를 통해 주거와 업무, 여가로 확장되는 전기차 활용 방식을 소개한다.

옆 전시장공간에는 전기차 자체보다 충전 인프라와 자율주행 기술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A홀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친환경차와 함께 충전 편의성과 전력망 연계 기술이, B홀에서는 자율주행 트럭과 로보택시가 관람객을 맞았다.

그리드위즈는 7kW급 스마트 충전기를 선보였다. 향후 V2G에 대응하기 위해 양방향 계량기를 적용했으며, 회사 관계자는 국내 상용화를 위해 법제화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이용자 김대희씨(49)는 “이직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좀 더 확대돼야 한다”며 업체별로 차이가 나는 충전 비용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홀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경쟁이 펼쳐졌다. 마스오토는 현대 엑시언트 자율주행 트럭과 관계 시스템을 전시했다. 회사는 장거리 화물 운송에서 운전자 부족이 이어지면서 자율주행 트럭의 사업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WM은 도심형 로보택시를 선보였다. 회사 측은 상용화 과정의 주요 과제로 시

범운행지구 등 규제를 꼽았다. SWM은 2028년까지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완료한 뒤 테스트와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AME 컨퍼런스에서는 마르코 파보네 엔비디아 AI 수석 디렉터가 ‘Physical AI를 위한 추론 모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육성과 국내외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도와 산업 기반을 논의했다.

올해 처음 열린 ‘무인이동체 X 민군협력 엑스포’ 현장에는 민간 첨단기술을 군과 공공분야로 확장하는 방산·듀얼유즈(민군겸용) 기술이 전시됐다. 88개 기업이 군사용 드론, 차세대 비행 플랫폼, 대드론 방호체계(인티드론), 국방 AI 지휘통제 시스템, 스마트 군수 물류 로봇 등을 선보였다.

/양성운·이승혁 기자
ysw@metroseoul.co.kr



코웨이 코디, ‘고소득 세일즈 전문가’ 부상

전체 평균 월수입 321만원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5배 ↑
점검·판매 병행해 소득 상승

코웨이의 방문점검판매원인 ‘코디(CODY)’가 고소득 세일즈 전문가로 확실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설치 제품 점검 뿐만 아니라 정수기, 공기정정기 등을 많이 판매한 상위 코디의 경우 월 수입이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프리랜서이면서도 정규직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코디의 평균 수입도 올해 들어 321만원을 기록하는 등 점점 높아지고 있다.

25일 코웨이에 따르면 현재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디는 1만2000여 명에 달한다. 코디는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남성도 일부 활동하고 있다. 코웨이 코디는 2~6개월마다 제품 사용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해 제품 관리, 필터 교체 등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객에게 최적의 제품을 추천하는 영업활동을



코웨이 코디 모델.

펼치는 등 세일즈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코디의 소득은 ‘제품 점검 수수료’와 제품 판매 후 받는 ‘세일즈 수수료’로 구성돼 있다.

코웨이가 집계한 전체 코디의 평균 소득(수수료)은 지난 2023년 당시 271만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며 올해엔 321만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월평균 수수료만 1000만원 이상을 가져간 코디는 2023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코웨이가 지난달 20일 개최한 ‘코디 스

타 어워즈’ 수상자들의 소득은 더욱 눈에 띈다. 제품을 많이 판매해 ‘세일즈 스타’에 오른 코디들의 상반기 월 평균 수수료는 약 1100만원, 관리 고객 대비 판매를 가장 많이 한 ‘생산율 스타’ 코디의 수수료는 약 875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수수료는 곧 코디들의 수입으로, 웬만한 대기업 간부급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생산율 스타 1위에 선정된 박윤하 코디(43세)의 경우 올해 들어 매달 평균 62대의 제품을 판매하며 월 평균 1500만원을 벌었다. 세일즈 스타 1위를 차지한 조경숙 코디(45세)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수입이 1400만원에 이른다. 6월엔 약 1800만원을 받았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디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점검 활동 비중이나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등 유연성이 높다”면서 “이와 함께 코디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판매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마케팅 지원 등 본사 차원의 전폭적인 세일즈 지원 정책도 적극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효성중공업·대한전선, 해외 전력망 시장 공략

효성, 차세대 송배전 기술 공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역량 강조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이 글로벌 전력망 시장 확대에 맞춰 차세대 송배전 기술과 해저케이블 사업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력망 전시회 ‘시그레(CIGRE) 2026’에 참가했다.

시그레는 전력 송배전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기구로, 격년으로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100여개 회원국과 1200여개 기관, 1만 5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전시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스프링타입 420kV SF6 프리G



대한전선 ‘CIGRE 2026’ 전시장. /대한전선

IS(가스절연개폐장치)를 처음 공개해 탄소 저감 기술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압형 초고압직류송전(HVDC) 시스템 ▲2022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변압기(SST) ▲생분해성 절연유를 적용한 친환경 변압기 ▲AI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플랫폼 ‘ARMOUR+’ 등을 선보였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터키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웠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LX판토스, 공대공 유도탄 국내 운송 성공

KAI 의뢰로 고난도 방산물류 수행
14개국 영공 승인 거쳐 해병대 인계

LX판토스가 해외 첨단무기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최근 성공적으로 끝냈다. 25일 LX판토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해병대용 국산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사업에 필요한 공대공 유도탄을 프랑스에서 국내로 수입 운송하는 고난도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의뢰로 수행했다.

유럽의 방산업체 M사에서 출고한 상륙공격헬기 공대공 유도탄은 프랑스 사토루 공항에서 LX판토스 전세기를 통해 인천 공항으로 옮겨졌고, 이후 육상운송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포항 해병대 부대까지

안전하게 인계했다.

LX판토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전세기를 투입했다. 또 안전과 보안을 위해 이 전세기에는 해당 화물만 단독 적재했다. 공대공 유도탄은 폭발물 위험등급 Class 1.2E에 해당하는 특수화물인데다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방산물자임을 고려했다. 방산물자 등 위험물 항공운송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운송 규정과 각국 항공 당국의 안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LX판토스는 이번 운송 과정에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중동·아시아 지역 총 14개국의 영공 통과 승인을 거치는 등 까다로운 국제운송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했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모델 출격

블랙링크·XRT 새로 추가

현대자동차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의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연식변경 모델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SUV 기반 하이루프 모델을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한편, 프리미엄과 아웃도어 수요를 겨냥한 신규 트림을 추가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혔다. 현대차는 25일 ‘2027 팰리세이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하이루프를 비롯해 프리미엄 디자인의 ‘블랙 링크’, 아웃도어 특화 ‘XRT’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트림별 주요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자금난 숨통 틔다

중기부, 경영안정 대책 강화
소상공인 500억·중소 400억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나섰다.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중진공 수도권 지원센터에서 중진공, 소진공 관계자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이달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협력·입점업체의 거래 및 영업 활동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동안 회생절차 장기화로 누적된

경영 애로와 자금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신설(소진공)하고 지원대상으로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들은 기존(3.85%)보다 낮은 3.35%(3분기 현재)의 금리로 금액도 기존보다 3000만원 늘어난 최대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진공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400억원 규모의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요건도 완화했다.

아울러 기보의 긴급경영안정보증 지원 대상에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포함하고 기존의 보증 1년 전액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현대해상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험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 합니다

H 현대해상

CCTV 영상처리·분석 똑똑해진다… AI 반도체칩 국산화 추진

과기부, 3세대 시스템온칩 개발 박차
현재 국내 기업 외산 의존도 높아

KT, 국산 NPU AI 엠티박스 개발
한화비전, 자체 개발 신제품 선보

국내 영상보안 시장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인공지능(AI) 관제 체계로 전환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정부의 AICCTV 전환 정책과 영상 관제 효율성을 위한 시장의 AI 도입 확대 움직임이 맞물리며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4년 간 총 비용 45 억원을 투입해 AICCTV 핵심 부품인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능형 CCTV 산업 육성에 따라 3세대 시스템온칩(SoC) 개발에 나선 것이다. CCTV 내부에서 영상처리와 AI 분석을 수행하는 핵심 반도체를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 CCTV 엠티박스가 설치된 모습을 구현한 이미지.

공공 부문에서도 AI CCTV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상남도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산 NPU에 기반한 AICCTV 전환 사업을 실시한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AI CCTV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보안 강화와 현장 관제 효율성 확보 때문이다. 공공 부문에서 영

상 관제는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산업으로 국내 공급망 확보가 필수다. 그러나 현재 영상보안용 SoC 시장은 미국·중국·대만 등 해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외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24시간 작동하는 CCTV를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영상을 직접 확

인하고 조치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했다.

특히 CCTV가 늘어날수록 유지비가 문제다. 관제 서버로 전달되는 영상 정보가 많아질수록 서버에 필요한 AI 가속기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부 채널을 선택해 분석하는 등 상황이 발생했다.

AICCTV 전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카메라 내부에 AI 연산 기능을 갖춘 SoC를 탑재하는 방식이다. 모든 영상을 중앙 관제 서버로 보내 분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서버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탐지 결과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존 CCTV와 관제센터 사이에 AI 칩이 탑재된 엠티박스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일반 CCTV가 촬영한 영상을 엠티박스가 받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구조다. 이미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업들도 기존 CCTV의 AI 전환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KT는 최근 AI 반

도체 팹리스 기업 딥엑스, 영상보안 기업 세솔과 함께 국산 NPU를 활용해 AI 엠티박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KT는 기술 검증이 완료되면 해당 디바이스의 공공 시장 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비전은 올해 자체 개발한 와이즈넷 9 집과 듀얼 NPU를 탑재한 AICCTV 신제품을 출시했다. 중앙 관제 서버의 저장 부담을 줄인 게 특징이다. 딥엑스·모빌린트·리벨리온 등 국내 AI 반도체 기업도 정부 사업 수주를 통해 CCTV 관제센터와 엠티 장비에서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는 영상 분석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 2024년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CCTV 관련 수출 규모를 2022년 1조6000억원에서 2027년 3조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KT, 내달 7일까지 ‘AI 능숙’ 신입사원 모집

NW인프라운용 등 핵심 직무

채용 규모 2배 확대… 인력 강화

KT가 오는 7일까지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고객·사업 현장 등 핵심 직무를 지난해보다 2배 확대했다.

25일 KT에 따르면 이번 대졸 신입사원 채용의 모집 분야는 ▲NW인프라운용 ▲B2B컨설팅&세일즈 ▲B2C마케팅&세일즈 등이다.

이들 분야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업·개인 고객 요구를 파악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하는 직무다. 이들 분야에서 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확대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평가 요소는 직무별 특성에 따라 실제 업무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문제해결 역량 등을 중심으로 지원자 직무 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평가 요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식이다. 직무 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선발 과정에서 KT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업무 방식·태도 등을 함께

살펴본다.

다만, 역량에 관해서는 스펙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원자가 처했던 상황과 역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결과 도출 등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과정에서 발휘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입사 후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직무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직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역량을 함께 키워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업무 혁신을 만들어가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SKT, 초경량 모델 ‘갤럭시 퀴텀7’ 선보

두께 6.9mm, 무게 179g

SK텔레콤은 25일 자사 전용 갤럭시 모델인 ‘갤럭시 퀴텀7’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퀴텀7은 퀴텀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모델이다. 두께는 6.9mm, 무게 179g으로 휴대성을 높였다. 특히 AI 기능과 45W 고속충전 지원 등 실용적인 기능이 대거 탑재됐다. AI 기능에서는 음성 파일의 텍스트 변환과 번역을 지원하는 ‘보이스 트랜스크립트 어시스트’ 기능도 추가됐다.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손가락이나 펜으로 원을 그려 검색할 수 있는 구글 ‘서클 투 서치’ 기능도 있다. 모션 포토로 촬영한 사진에서 최적의 표정을 골라주는 베스트 페이스, 사진 요소를 손쉽게 지우고 채울 수 있는 AI 지우개 등이 탑재됐다. 카메라 기능도 어두운 환경에서 선명도를 높였다. 갤럭시 A 시리즈 최초로 저조도 노이즈 감소 기능을 장착했다. 방수·방진 등급은 최신 플래그십 모델



SK텔레콤이 자사 전용 모델 갤럭시 퀴텀7을 출시했다. /SK텔레콤

과 동일한 수준인 IP68로 강화했다.

갤럭시 퀴텀7은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과 전국 T월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색상은 어썸 그레이·아이스블루·라일락 등 3종이다. 라일락 색상은 T다이렉트샵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신제품 3종 출고가는 71만7200원이다. 출시 기념 행사도 연다. 9월 7일까지 갤럭시 퀴텀7 구매 고객은 T우주 구독 상품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이용권과 메가MGC커피 2잔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T다이렉트샵에서는 9월 23일까지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3만원 상당의 네이퍼페이 포인트를 지급한다. /조민선 기자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출격 전부터 흥행 예감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1위

컴투스의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이 정식 출시 전 사전 다운로드만으로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1위에 올랐다.

컴투스는 에이버튼이 개발하고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제우스: 오만의 신’이 지난 24일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한 당일 국내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인기 게임 6위에 올랐다.

제우스: 오만의 신은 오는 26일 낮 12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세 차례 진행된 캐릭터명 선정 이벤트가 모두 조기 마감됐으며, 출시 일주일 전 진행된 ‘D-7개발자 라이브’에서도 이 용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게임은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8개 클래스와 다양한 경쟁·성장 콘텐츠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모드를 활용한 편의 시스템도 적용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지난 24일 ‘바른 AI 디지털 생활’ 공모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한 성신여중의 ‘바다의보물’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헬로비전

LG헬로비전,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총 580편 작품 접수… 14편 수상

LG헬로비전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공지능(AI) 활용법 등을 위한 디지털 교육에 앞장선다.

LG헬로비전은 지난 24일 전국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바른 AI·디지털 생활 미디어 콘텐츠 창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한 가운데 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서 열렸다.

행사 취지는 청소년이 AI·디지털 역기

능의 위험성을 주체적으로 짚어보고, 올바른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특히 지난 1학기에 진행된 ‘바른 AI 디지털 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윤리 의식을 창작물로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동영상, 카드뉴스 및 만화, 포스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58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376편) 대비 54% 증가한 수치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입증했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공익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4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조민선 기자

LG U+, 생활밀착형 상품 ‘유독 픽’ 개편

AI 8종부터 식음료·쇼핑 혜택까지

LG유플러스가 구글 ‘제미나이 프로’ 등 인공지능(AI) 모델에 올리브영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 혜택을 다한 구독 상품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생활 밀착형 상품 ‘유독 픽’을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독 픽은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구글AI 프로 등을 생활 혜택과 함께 선택에 이용하는 상품이다. 구성은 매월 변경할 수 있다.

유독이 현재 보유한 AI 구독 상품은 총 10종이다. 학술·전문 검색 AI 라이너, 영상 편집 AI 키네마스터, 생성형 AI 제공 플랫폼 우수AI 등이다. 이중 AI 8종을 ‘유독 픽’ 상품의 추가 혜택으로 확대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유독 픽’ 상품 가입 고객은 OTT, 구글 AI 프로 등 메인 서비스에 더해 8종의 특화 AI 중 하나를 추가 선택할 수 있다. 또 식음료, 쇼핑 중심의 혜택을 CGV 1+1 예매권,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플러스 이용권 등을 추가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유튜브 프리미엄 픽 생활 혜택형’ 상품을 선택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과 함께 메가커피 2잔, 베스킨라빈스·파리바게뜨 할인 쿠폰, 올리브영·다이소 기프트카드, 스노우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 등 생활 혜택 중 매월 원하는 구성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추가 금액 4000원을 지불하면 매월 CGV 1+1 영화 예매권 1매를 이용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한화, 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방산 ‘30조 잭팟’ 정조준

한화 주가 이달 들어 17.40% 상승
미국 자주포 사업 수주 가능성 부각
KAI와 시너지 통한 패키지 수출 기대

한화그룹이 지상과 해상에 이어 공중·우주 플랫폼까지 묶는 ‘크로스 도메인(Cross-domain)’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방산 메이저 도약을 위한 판짜기를 마쳤다. 한국항공우주(KAI) 지분 인수와 미 육군 자주포(MTC) 시제품 단독 선정이라는 두 가지 대형 모멘텀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10조~30조 잭팟 노리는 K9MH…수주 가치 재평가에 눈높이도 ‘쑥’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한화는 17.40% 상승했으며, 최근 한 달간 ‘PLUS 한화그룹주’ ETF의 수익률은 6.73%로 집계됐다. PLUS 한화그룹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방산 주 비중이 약 40%에 달해 최근 방산 수주 확대에 따른 수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한화그룹 상장사 중 방위산업(방산) 관련 기업인 한화에어로



한화 그룹주가 한국항공우주(KAI) 지분 인수와 미 육군 자주포(MTC) 시제품 단독 선정이라는 호재가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스페이스의 주가는 20.17% 뛰었으며, 한화시스템도 16.32% 급등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이달에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884억원 담았으며, 한화오션은 1727억원 사들이며 3번째로 많이 순매수했다.

지난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이 추진하는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단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약 1417억

원 규모이며, 누적 액면가는 약 3715억원이다.

미국 자회사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인 기동 전술포(MTC) 시제품 제작업체로 사실상 단독 선정된 것은 그룹 멀티플 상향의 결정적 촉매제다. 이번 계약은 미국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 6문을 우선 공급하고, 12문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향후 약 4년간 성능평가를

거친 뒤 최대 18문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 환산 시 약 10조원 규모이며, 최대 20~3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정동익KB증권 연구원은 “폴란드 2차계약을 참고할 경우 이번 계약은 약 10조원, 탄약보급차 패키지 구성과 후속 군수지원, 미국 현지생산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감안하면 최대 20~3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최종 선정시 최대 30조원 규모 사업 기회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굵직한 모멘텀이 가시화되면서 증권가의 기업가치 평가 기준도 실적에서 미래 수주 파이프라인 가치로 확장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MTC 시제 업체 선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수주 확률을 90%로 상향 조정하고, 파이프라인 기대 이익을 기존 5조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목표주가는 기존 214만원에서 15% 상향 조정한 246만원을 제시했으며,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수주는 K-방산 무기체계의 대규모 첫 미국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미 케도형 자주포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K9이 K9MH로 변모해 차륜형 자주

포 시장에 데뷔한 만큼, 신규 시장에 연착륙하는 것을 넘어 재빨리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K9MH 양산 여부는 2029~2030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산이 결정될 경우 2030년대의 실적 예상치 상향을 바탕으로 적정가치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31조6543억원, 4조5211억원으로 추정했다.

◆ KAI 지분 15.89%의 힘…‘육·해·공 완제기’ 수직계열화 완성

시장에서는 한화그룹의 KAI 지분 인수가 지니는 전략적 시너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육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양(한화오션)에 이어 공중 플랫폼까지 확장함으로써 육해공과 우주를 아우르는 ‘크로스 도메인’ 포트폴리오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0일 KAI 주식 3.45%를 장내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을 합산해 총 15.89%로 높아진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2030세대 ‘하늬’, 중장년은 ‘삼전’ 담았다

키움證, 고객자산가 포폴 세대별 차이
예탁자산 10억 이상 고객 80.7% ↑

고객자산가들의 주식 투자에서도 세대별 선호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20~30대 고객자산가는 성장성이 높은 SK하이닉스를 최선호 종목으로 꼽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된 가운데 고객자산가들 역시 세대별 투자 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달리 가져가는 모습이다.

25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 고객 수는 90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말 813만명에서 92만명가량 증가했다. 특히 예탁자산 10억원 이상 고객 수는 1년 만에 80.7% 급증했고, 30억원 이상 고객도 약 90% 늘었다.

고객자산가층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의 투자 종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NAVER, 카카오 등 대표적인 대형주와 성장

주가 고객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두산에너지빌리티 등의 존재감이 커졌다.

10억원 이상 고객의 보유 종목을 보면 지난해 7월에는 삼성전자, NAVER, SK하이닉스, 카카오, 두산에너지빌리티 순이었다. 올해는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2위로 올라섰고 현대차와 두산에너지빌리티, NAVER가 뒤를 이었다. 30억원 이상 고객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전자, NAVER, 카카오, SK하이닉스, 두산에너지빌리티 순이었던 상위 종목은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전기로 재편됐다.

특히 세대별로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하다. 20대 이하와 30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SK하이닉스였다. 지난해 7월까지 두 연령대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했던 SK하이닉스가 올해 나란히 1위로 올라섰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젊은 투자자들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국내 대표주이자 시장 지배력을 갖춘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는 성향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실제자금 흐름에서도 두 종목의 존재감은 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개인투자자는 삼성전자를 약 50조6450억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사들였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에도 약 4조9831억원의 순매수 자금이 유입됐다. 고객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올해 개인투자자 전체의 매수 흐름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

다만 세대별로 보면 같은 대형주 안에서도 투자 목적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고객자산가들의 투자 행태를 살펴보면 2030세대에서는 성장 기대가 높은 종목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시장 대표성과 안정성을 갖춘 종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SKT, AI·엔트로픽 업고 주가 91% ‘껍충’

KT-0.19%, LG유플러스 -1.01%

SK텔레콤이 실적 개선세를 바탕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뛰며 통신 3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사업 기대감과 엔트로픽 지분 가치 등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SK텔레콤의 주가 상승률은 91.21%에 달한다. 반면 KT(-0.19%)와 LG유플러스(-1.01%)는 제자리 걸음이다.

증권가는 SK텔레콤이 향후 AI데이터센터(AIDC) 사업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감이 투자자를 불러모으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SKT의 경우엔 AI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AI 무선접속망(RAN), SK하이퍼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자사주 수급을 바탕으로 한 주가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SKT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



따는AI로 생성한 ‘통신 3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승부’ 관련 이미지.

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은정 DB증권 연구원은 “SKT가 AIDC 확장을 위해 7500억원 출자로 SK하이퍼를 설립하고, 부지와 수전을 확보한다. 고객 유치와 DC 사업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자금 이상의 필요 자금은 고객 확보 후 재무적투자자(FI) 유치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턴 울산 AIDC와 AI팩토리를 순차적으로 열고, 2029년부터는 (전력용량)5GW, 2035년부터 15GW급 AIDC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운용사 40%, 의결권 행사사유 ‘형식적’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

자산운용사 10곳 중 4곳은 주주총회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의결권 행사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찬성하거나 의결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운용사도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자산운용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열고 285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결과를 공

개했다.

점검 결과 전체 운용사의 42.4%인 121개사는 주주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표현으로 행사사유를 기재했다.

안건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의 문이 드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모든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운용사는 50곳, 일괄 찬성한 운용사는 86곳이었다.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곳은 87곳,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곳은 68곳으로

집계됐다. 투자 대상 법인과 관계를 밝히지 않은 운용사도 134곳에 달했다.

서로 다른 안건에 동일한 행사사유를 반복해 적은 비율은 중소형사에서 특히 높았다. 중소형 운용사의 중복지재율은 31.1%로 대형사 11.6%의 약 3배 수준이었다.

다만 공모운용사를 중심으로 내부관리체계를 갖추는 움직임은 확대됐다. 점검 대상 공모운용사 67곳 가운데 의결권 행사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8곳으로 늘었다. 의사결정기구를 둔 운용사는 36곳에서 40곳, 관련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한 곳은 12곳에서 20곳으로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고위험 공모펀드 ‘20% 손실’ 이력도 공개

금감원,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

앞으로 해외 부동산이나 레버리지 등 고위험 공모펀드를 출시할 때 운용사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위험을 최대 4개로 추려 쉽게 설명해야 한다. 같은 유형의 상품에서 2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한 전력이 있다면 해당 상품과 손실 규모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공모펀드의 주요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서

식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거나 상품 구조상 위험이 크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펀드 유형이다. 해외 부동산·해외 리츠(REITs)·주가연계펀드(ELF)·과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커비드콜·목표전환형·금현물·해외 재간접 펀드가 포함된다.

운용사는 대상 펀드를 새로 출시할 때 원본손실 위험 1개와 상품별 특수위험 최대 3개 등 핵심 위험을 최대 4개로 정리해야 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자동화 혁신… 스마트항만 전환

국내 항만 첫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위험징후 감지해 사고 전 선제 대응
4분기부터 14종 재난·사고 관리
자동화 테스트베드에 7724억 투입
피지컬 AI 집목해 차세대 항만 구축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내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체계 구축이다. 공사는 또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를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구현)을 적용해 하역장비 등의 안전자동화를 지향하는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검증 무대)' 구축사업도 최근 개시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보 체계를 가동하는 게 핵심이다. 공사 관계자는 "집단지성에 의한 조직적·집단적 대응력을 발휘해, 사고 발생 전 조치를 강화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라고 설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내 항만 중 최초로 이를 적용했다. ▲항만사고 위험징후 감지 ▲조기경보 발령 ▲사고예방대책회의 ▲사고위험 선제 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위험징후가 높아지면 현장관리자는 사고예방대책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광양항.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리자가 현장에 개입하는 등의 선제적 사고예방조치를 실시해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사전 차단 및 예방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지난달 시범운영으로, 항만도로 교통사고 및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사고에 대해 이 체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달 중에 조기경보 발령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 한 뒤 오는 4분기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포함된 항만 특화 조기경보 시스템에는 그간 항만에서 빈번히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10개 분야 14종

의 주요 사고에 대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폭염과 한파, 풍수해, 화재, 도로교통 사고, 항만시설 파손,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관호 공사 사장은 "여수·광양항의 안전은 항만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경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사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사의 집단지성이 작동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정교하게 시스템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모두가 안심하

고 이용할 수 있는 항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 말 광양항에서 '항만자동화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9년까지 총 7724억 원을 투입된다.

국산 하역장비, 컨테이너 이송장비, 항만 운영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완전자동화 컨테이너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치는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이며 연간 136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하역능력을 지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내 항만의

안정적인 자동화항만 도입 여건을 조성하고, 장비와 시스템 등 관련 국내 항만기술 시장을 창출해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해운수산부가 발표한 '피지컬 AI(인공지능) 항만 전략'과 연계돼 있다. 해수부는 특히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피지컬 AI 기술의 선제적인 도입과 실증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드 운영 최적화를 위한 에이전트 AI 기술, 무인이송장비(AGV) 주행 구간의 균열·침하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기술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광양항 테스트베드는 단순한 자동화항만을 넘어 AI 기술이 도입된 차세대 스마트항만으로의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는 단순한 하역장비 자동화를 넘어, 피지컬 AI 기술의 선제적 도입과 실증 집적화를 통해 광양항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며 "스마트 항만의 미래를 제시하고 대한민국 항만기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기후부·반도체업계, 재생에너지 해법 모색

삼성·SK·구글·ASML 등 간담회
재생에너지 수요·애로사항 청취
입지·시장·전력망 혁신방안 공유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글,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및 빅테크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조달 해법 모색에 나섰다. 국내 투자를 늘려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글로벌 반도체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

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가성비 높은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은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좌우하는 핵심 여건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이격거리 개선 ▲국·공유지 활용

및 계획입지 등 입지제도 혁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통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중개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제도 혁신 ▲국가전력망 확충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입지, 시장, 전력망 혁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 세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韓, 지하수 국제표준 주도권 잡는다

국립환경과학원, ISO 기술위 제안
내달 29일까지 회원국 찬반투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지하수 기술위원회(TC) 설립을 제안하고 회원국 투표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지하수 표준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ISO 정회원국 135개국을 대상으로 '지하수 기술위원회 설립' 찬성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온라인 기술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안정적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 인도, 영국 등 주요국은 지하수저류층, 인공함양, 지하수 예측모형(모델링) 등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환경분야 최초로 ISO 수문계측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SC)' 간사국을 수임한 이후 국제표준 활동을 주도해 왔다. 이어 기후위기 적응 기술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분과위원회를 상위 기구인 독립 '기술위원회(TC)'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ISO 중앙사무국은 지난 7월 7일부터 회원국 대상 찬반 투표를 시작했으며, 투표는 오는 9월 29일 종료된다. 최종 설립 및 간사국 지정 여부는 2027년 3월 ISO 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기술위원회가 공식 설립될 경우 한국은 글로벌 지하수 자원 관리 표준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며, 국내 우수 물 산업 기술의 해외 진출 문턱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동서발전, 발전소 안전 강화

고위험 공정 합동점검·위험요인 개선
협력업체 안전관리·맞춤교육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규모 설비 및 고위험 공정이 집중돼 있는 발전산업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 및 현장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울산 중구 공단 본부에서 동서발전과 '전력산업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의 안전관리 제고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감축을 도모한다.

우선 도급·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



울산 중구 소재 산업안전보건공단.

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서발전 소속 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체협교육도 실시한다.

사고 위험이 큰 공정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을 진행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한다. 발전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안전활동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 측정과 관련 제도 정착에도 협력한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과 전력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 분야의 안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동서발전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TL, 신입직원 47명 공개채용

연구·행정 등 44개 분야 선별
자립준비청년 가점 올해 신설

국내 유일 공공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2026년 정규직 신입직원 47명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일반직 31명, 전문직 8명, 공무직 8명 등 총 47명이다. 채용 분야는 이공계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사무직 등 4개 직종 44개 분야다.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가점을 신설했으며, 이전지역(경남·울산) 인재와

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제도로 함께 적용한다.

지원서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 오전 11시까지 온라인 채용 누리집(https://ktl2026.careerlink.kr)을 통해 접수받으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29일 입사할 예정이다.

이충원 KTL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채용을 통해 기관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KTL과 함께 기여할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K-힐링 편의점 이야기 ”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티켓링크 | 문의 02-332-4902

경북, 로봇산업에 4862억... 구미 공급망·포항 R&D 거점 육성

로봇산업 공급망 대응 TF 발족
5년간 6대 전략 15개 과제 추진
특화단지 기반 생태계 확장 계획

경북도는 24일 구미시청에서 삼성의 구미 로봇 투자에 대응해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경북 로봇산업 공급망 대응 T/F'를 발족하고, 향후 5년간 4862억원을 투입하는 '경북 로봇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T/F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략기획·공급망전환·R&D 발굴·투자유치·산업입지·기업협력 등 6개 실무반으로 운영된다. 도청 관련 부서가 참여해 산업용지 확보와 신규 R&D 과제 발굴,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경북도는 6대 전략 15개 과제를 추진해 구미를 부품·양산 중심의 '공급망 거점', 포항을 '연구개발·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고 로봇 특화단지 유치를 기반으로 도내 전역에 전주기 로봇산업 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24일 구미시청에서 '경북 로봇산업 공급망 대응 T/F 발족식'을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액추에이터, 센서·카메라 모듈, 로봇용 배터리, 케이싱 등 4대 핵심부품 국산화와 양산 R&D를 지원하고, 부품·완제품 '오픈 파운드리'와 '표준화 인증·평가 지원센터', '피지컬 AI 로봇 학습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 제조기업 150개사의 로봇산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며, 80개 사에는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150개 제조현장에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로봇기업협의회는 기존

포항·구미·경산 3개 거점에서 북부권을 포함한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로봇 특성과 대학(원) 유치와 재직자 리스킬링(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 약 30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김창혁 경북도의 회 기획경제위원장, 강승수 구미시의 회 의장, 관련 기관과 구미지역 로봇기업 11개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현장에서 나온 기술개발·로봇

도입·R&D·인프라 지원 수요 등을 신규 사업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융합된 '제조 AX'는 지역 제조업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전담 T/F를 중심으로 경북이 대한민국 로봇 공급망과 제조 혁신의 중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산시-대구의대 글로벌 대학 기업지원관 세운다

경산시와 대구한의대학교는 24일 글로벌 대학 기업지원관 조성하고 준공 후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지원관은 대구한의대가 교육부 '글로벌 캠퍼스30'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삼성캠퍼스에 연면적 1만 5693㎡,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기업지원실 50실과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연구실 등이 들어선다.

양 기관은 조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준공 후 회의·컨벤션 시설을 경산시 주최·주관 행사와 교육·세미나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청도군

아이스홍시 2.7t 수출 선적식

청도군은 24일 농업회사법인 ㈜청도원감에서 청도반시를 활용한 아이스홍시 약 2.7톤의 일본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청도원감은 청도읍 신도리에 소재한 감 가공업체로, 2024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됐다.

이번 수출 물량은 약 2.7톤으로, 아이스홍시는 일본 내 약 2만2천 개 점포를 보유한 세븐일레븐 유통망에 진출한다. 청도반시가 공제품의 현지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도(경북)=김진곤 기자



포항시와 지역 의료단체 관계자들이 24일 포항시청에서 방문의료센터 활성화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ALL GOOD 통합돌봄' 가동

방문의료센터·지역 의료단체 업무협약 박용선 시장 "시민의 건강한 노후 자원"

포항시가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을 연계하는 '포항 ALL GOOD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24일 시청에서 방문의료센터와 지역 의료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명으로 구성된 제1기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약에는 포항시와 포항의료원, 포항시의사회, 포항시치과의사회, 포항시한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방문의료 대상자 발굴·연계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의료기

관 참여 확대, 정보교류 및 행정 지원 등에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시민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포항 ALL GOOD 통합돌봄' 모델 완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전재수 부산시장, 서부산권 기업 현장점검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 진행

부산시는 24일 강서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서부산권 산업단지 기업들과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재수 시장(사진)이 지난 7월 1일 취임 첫날 서명한 '부산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현장에 이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재수 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남규 녹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 김윤기 서부산스마트밸리관리공단 이사장 등 서부산 산업단지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래차 전동화 부품 시생산·평가 장비 공용 플랫폼 구



전 재수

전 재수

축 ▲부산형 스마트 공장 구축 ▲주차난 해결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기업의 생산 활동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견이 오갔다. 전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오후 2시 20분 강서구 범방동의 지비라이트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소통했다. 전 시장은 "서부산권 산업단지는 부산의 산업을 이끌어 온 핵심 거점이자, 지금도 부산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오늘 주신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명소발굴 프로젝트' 775건 선정

해인사·진주성 등 국민 선택 받아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 국민 투표에서 경남관광명소가 총 775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여행 기자·작가 등 여행전문가 100인이 전국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 투표를 거쳐 8개 분야 100개 여행 주제별 명소를 뽑는 참여형 사업이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국민 4만145명이 참여해 총 153만8035표를 행사했다.

경남에서는 18개 시군의 관광자원이 8개 분야에 고르게 이름을 올렸다. 미식 분야에서는 통영 충무김밥과 의

령 망개떡이, 자연·생태 분야에서는 함양 상림공원과 거제 신선대, 남해 보리암 등이 선정됐다. 문화·예술·전통 분야에서는 함천 해인사와 진주성, 밀양 영남루 등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경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명소를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숨은 관광자원을 꾸준히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선정된 명소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진도군,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체계 고도화

진도군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통합돌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4일 ㈜에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스마트 돌봄 분야' 특화사업인 '스마트 365 안전지킴이'를 추진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대표적인 보안, 안전기업인 ㈜에스원이 협력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에 이동감지센서

등 지능형(스마트) 기기를 설치한 후, 24시간 활동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에스원의 관계 및 긴급출동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게 현장 대응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지능형(스마트) 통합돌봄 체계(모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도군은 수행업체 공모를 통해 ㈜에스원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에스원이 보유한 24시간 관제 및 긴급출동 역량과 지능형(스마트) 센서 기술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접목했다.

/진도(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국립창원대-경남중기청

지역 글로벌 마케터 육성 '맞손'

국립창원대학교와 글로벌마케팅육성사업단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역 글로벌 마케터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청년 무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창원대는 지역 기업과 학생을 매칭해 해외 전시회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안전관리와 사업비도 지원한다. 경남중기청은 수출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발굴·추천하고, 현장 실습·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대학과 연계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K-라면, 상반기 수출 신기록… 주요기업 실적·투자 ‘날개’

해외매출 급증… 2분기 실적 개선
국내 채용확대 등 선순환 이어져
생산공장 건립·설비 첨단화 속도

K-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아가며 국내 라면업계의 실적과 고용, 생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 라면 기업들은 해외 매출 급증에 힘입어 2분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대기업 채용 한파 속에서도 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상반기 K-라면 수출액 9.3만 달러… 기업 성장세 ‘뚜렷’.

2026년 상반기 K-라면 수출액은 9억 3539만 달러(약 1조 3000억 원)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는 각 기업의 2분기 실적 개선으로 직결됐다.

삼양식품은 2분기 매출 7703억 원, 영업이익 17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3%, 46.7% 증가했다.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한 6458억 원으로 분기 최초 6000억 원을 돌파하며 전체 매출의 84%를 차지했다.

농심은 2분기 매출 9561억 원, 영업이익 593억 원으로 각각 10.2%, 47.6% 신장했다. 고환율·자재비 인상으로 국내 사업 영업이익률은 4.4%에 그쳤으나 미



삼양식품 명동 신사옥.

/삼양식품



농심 미국 제2공장 전경.

/농심



삼남 글로벌 로지스틱스 센터 전경.

/오투기



팔도 나주공장.

/팔도

국·중국 등 해외 법인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오투기도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내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6% 성장한 9438억 원, 영업이익은 0.3% 증가한 453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은 1106억 원으로 15.1% 늘었다.

이같은 해외 수요 폭발은 채용 시장의 한파를 뚫고 고용 확대에 이어졌다.

삼양식품의 상반기 직원 수는 321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전년 말 대비 약 200명 증가)했으며, 정규직 평균 급여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13.4%에 달했다. 농심 역시 상반기 직원 수가 5583명으로 반등했다.

업계는 생산능력(CAPA)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양식품은 밀양2공장 가동률 제고 및 내년 중국 자싱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농심은 오는 10월 완공되는 부산 녹산 수출전용공장(연 5억 개 생산)과 내년 울산 삼남물류센터 가동을 앞두고 있다. 오투기 역시 경북 구미에 2000억원을 투자해 수출용 라면 공장을 신설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북미 첫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에는 최대 9980팔레트를 보관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센터를 완공했다.

◆미국 현지 마케팅·AI 스마트 공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과 공장 첨단화도 눈에 띈다.

농심은 미국 자회사 농심홀딩스·아메리카를 통해 현지 콘텐츠 합작법인 NMSTUDIOS(지분 50%, 출자금 30억 8000만

원)를 설립했다.

팔도는 주력 제품을 생산하는 나주공장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으로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했다. ‘피지컬 AI’를 구현해 공정 오차를 극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中 육류함유 라면 규제 해제 ‘호재’

정부 차원의 통관·위생 규제 완화도 K-라면의 해외 비상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협력문서를 체결하며, 그간 가축전염병 우려로 금지됐던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을 타결했다.

국내 기업들은 별도의 중국 전용 생산 라인을 돌리지 않고도 국내 판매용 내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것. 식

품안전나라를 통한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 간소화(처리 기간 3개월→10일 감축) 및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으로 절차가 개선됐다. 또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라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손실 규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K-라면에 대한 해외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뿐 아니라 생산시설 확충과 인력 채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동, 국가별 통관·위생 규제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별 대응 역량에 따라 성장세가 차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섬유패션업계, ‘해외·고부가·IP’ 집중… 불황 돌파구 연다

소비 위축 지속… 상반기 실적 희비
미스토홀딩스, 영업이익 4888억 1위

소비 위축과 압박 부진이 이어진 상반기에도 섬유패션 기업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황 돌파에 나섰다. 해외 시장을 공략한 패션기업과 고부가가치 소재로 글로벌 수요를 확보한 화섬기업들이 나란히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 여기에 비효율 사업을 걷어내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IP를 확보하며 체질 개선에 나선 기업들도 성과를 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섬유패션 상장사 실적 공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스토홀딩스’는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 4888억원·영업이익률 18.0%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미스토홀딩스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를 전개하고 글로벌 골프용품 기업 ‘아쿠아네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상반기에는 골

프용품·휠라 아패럴 라인 판매 호조와 해외 법인 매출 성장 등에 힘입어 외형과 수익성을 모두 잡았다. 특히 2분기 아쿠아네트 매출(1조 2308억원·22% ↑)과 영업이익(2588억원·75% ↑)이 늘면서 실적 성장을 주도했다. 휠라도 국내 사업 수익성 개선과 중화권 사업 성장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MLB,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등을 운영하는 ‘F&F’는 영업이익 2399억원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F&F는 내수 채널의 한계를 넘기 위해 중국 현지 유통망을 효율화했다. 아울러 대대적인 현지 마케팅을 전개하며 중국 시장에서 탄탄한 팬덤을 확보했다. F&F의 2분기 중국 법인 매출은 1776억원으로, 2분기 전사 전체 매출(3996억원)의 44.5%를 차지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소재 기업의 실적 개선도 눈에 띈다. 폴

리에스터·나일론 등 화학섬유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효성티앤씨 섬유 부문’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7.4% 늘었다. 효성티앤씨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의 고수익 제품 비중을 늘리고 나이키·롤루레론 등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대상으로 납품을 확대했다.

폴리에스터 원사·원료 제조업체 ‘타케이케미칼’도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873.4% 급증했다. 타케이케미칼은 국내에서 수거한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재생 섬유(K-rPET) 에코론과 기능성 원사 쿨론 등 고부가가치 차별화 원사 비중을 대폭 늘린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전략이 주효했다.

비효율 브랜드 정리와 수입 브랜드(IP) 강화 전략도 실적 반등으로 이어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 패션 부문’은 상반기 영

업이익이 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3% 늘어 수익성을 확대했다. 저효율 매장 정리 등 고정비 효율화를 단행함과 동시에, 코오롱스포츠 등 주요 브랜드의 재고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드롭 드 무슈’·‘디아티코’ 등 글로벌 브랜드를 잇달아 도입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신세계백화점 계열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유통기업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21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저성과 자체 브랜드의 사업 축소 및 철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어그’·‘브루넬로 쿠치넬리’·‘꾸레주’ 등 핵심 수입 패션 IP 강화에 집중했다. 이에 더해 ‘스튜디오 톰보이’·‘보브’ 등 자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병행하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CJ온스타일 베라왕 패션 컬렉션 전개

CJ온스타일이 미국 패션 브랜드 ‘베라왕(Vera Wang)’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6년 FW 시즌부터 베라왕 패션 컬렉션을 국내에 단독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베라왕의 2026년 FW 컬렉션은 오는 29일 CJ온스타일에서 국내에 처음 공개된다. CJ온스타일은 모바일 라이브 등 콘텐츠를 통해 컬렉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베라왕의 이번 FW 시즌 콘셉트는 ‘모던 얼루어(Modern Allure)’다. 블랙과 화이트를 중심으로 레이스·러플·벨벳·새틴 등 소재와 다양한 실루엣을 활용했다. 점퍼, 블라우스, 원피스, 팬츠, 뷔스티에, 재킷 등 약 40개 스타일로 구성했으며 ‘칼라일 새틴 드레스’와 ‘엔벨런스 플리츠 스커트’ 등을 대표 상품으로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동서식품, 캡슐커피·머신 라인업 확대

카누 바리스타, 18종 전용 캡슐 운영
우유 레시피 구현 ‘오아시스’ 머신 출시

홈카페 문화가 확산하면서 간편하게 전문점 수준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서식품은 2023년 프리미엄 캡슐커피 브랜드 ‘카누 바리스타’를 선보인 이후 소비자 취향을 겨냥한 제품과 머신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카누 바리스타는 라이트·미디엄·다크 로스트 등 로스팅 강도별 제품을 비롯해 디카페인과 싱글오리진 등 총 18종의 전



카누 바리스타.

/동서식품

용 캡슐을 운영한다. 지난 6월에는 아이스커피에 적합한 ‘카누 라이블리 브리즈’와 ‘카누 인피니트 피크’를 추가했

다. 라이블리 브리즈는 에티오피아 원두를 활용해 산뜻한 산미와 베리류 향미를 살렸으며, 인피니트 피크는 콜롬비아 원두를 블렌딩해 묵직한 바디감과 견과류 향미를 강조했다.

머신에는 동서식품의 커피제조 기술을 적용했다. 일반 에스프레소 캡슐보다 1.7배 많은 9.5g의 원두를 담았으며, 에스프레소와 물을 별도 노즐로 추출하는 ‘듀얼 노즐 바이패스’ 기능과 아이스 전용 버튼을 적용했다. ‘어반’, ‘브리즈’, ‘베블’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라떼와 카푸치노 등 우유 레시피까지 구현할 수 있는 프리미엄 머신 카누 바리스타 오아시스’를 출시했다. 약 3초의 예열과 에스프레소 기준 약 30잔의 연속 추출이

가능하다.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한 체험 마케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북촌에서 ‘카누 캡슐 테일러 in 북촌’을 운영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캡슐을 직접 시음하고 취향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스위치 투 카누’ 팝업스토어를 열어 호환캡슐을 통한 카누 바리스타의 커피 경험을 선보였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카누 바리스타는 아메리카노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세분화된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캡슐커피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U ‘아보 트러플 치킨’ 출시

CU가 ‘2026대구 치맥페스티벌’ K-치킨 신메뉴 경연대회 우승작을 상품화한 ‘아보 트러플 치킨’을 전국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7월 ‘2026대구 치맥페스티벌’ K-치킨 신메뉴 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대구 치킨·포차 브랜드 ‘닭둥가리’의 레시피를 편의점 상품으로 구현한 것이다.

아보 트러플 치킨은 매콤한 닭강정에 과카몰리 소스와 트러플 케이크·마요 소스를 조합한 메뉴다. 기존 닭강정에 아보카도와 트러플을 활용한 소스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김서현 기자

K-웰니스, ‘헤어·여성 제품’ 등 세분화… 북미 영토 재편

LG생활건강 ‘에이본’ 전격 매각
K-헤어 ‘닥터그루트’로 재공략

라엘 ‘360도 우먼 웰니스 케어’
여성 호르몬 주기 맞춤형 제품

실리콘투 ‘감탄브라’, 美서 인기

K뷰티가 유통 채널 재정비와 웰니스 육성 전략으로 북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비효율적인 공급망은 과감히 정리하고 현지 거점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또 스킨케어 중심의 기존 브랜드 자산을 더마, 헤어, 여성 생애주기 등으로 세분화해 ‘K웰니스’를 구축하고 있다.

25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과거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였던 ‘에이본’을 전격 매각한다. LG생활건강 북미법인 자회사 더 에이본 컴퍼니 지분 100%를 스트랫포드 월드와이드에 매각하



미국 뷰티 편집숍 세포라 매장에 설치된 ‘닥터그루트’ 매대. /LG생활건강

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스트랫포드 월드와이드는 글로벌 투자회사 리전트의 관계사이며, 매각 대금은 거래 종결 시점에 확정 예정이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4월 에이본 북

미 사업노권을 인수하며 추진했던 소셜 셀링(방문판매) 중심 판매 구조를 정돈한다. 당시에는 에이본의 현지 네트워크와 물류 인프라가 핵심 자산으로 꼽혔다.

이후 글로벌 화장품 소비 축이 이커머스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LG생활건강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채널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의 주력 브랜드인 고급 헤어 브랜드 닥터그루트의 경우, 올해 미국 전역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 424곳에 정식 입점했다. 지난 3월 세포라 온라인 및 5월 주요 매장 선공개에 이어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 내 ‘K헤어’ 및 ‘넥스트 빅 씽’ 매대까지 켜졌다. 올해 상반기 미국 유명 온라인몰 아마존에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3% 폭증하는 등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동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먼 웰니스 브랜드 라엘은 ‘360도 우

먼 웰니스케어’ 사업을 구체화한다. 글로벌 투자사 타이브룩 캐피탈 파트너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다.

앞서 2017년 백양희, 아네스 안, 원빈나 등 한인 여성 3명이 설립한 라엘은 유기농 순면 생리대로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현재는 여성 건강을 위한 이너뷰티 제품 등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타겟, 월마트 등 미국과 한국의 4만 개 이상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라엘은 여성 호르몬 주기 맞춤형 제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

타이브룩 측은 “여성 생애와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춘 웰니스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한 라엘의 혁신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개별 브랜드뿐만 아니라 K뷰티 유통 플랫폼 기업인 실리콘투 역시 카테고리를 다변화하며 ‘웰니스’를 선택했다.

실리콘투는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스타일코리안닷컴에서 국내 언

더웨어 브랜드 ‘감탄브라’를 공식 선보였다. 개시 첫 주 만에 초도 물량의 60%를 소진해 누적 판매량은 400건을 넘었다. 특히 전 세계 20여 개 국가 주문 중 미국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흥행을 이끌었다.

100% 현금 직매입 기반의 물류 및 유통 인프라를 갖춘 실리콘투는 이번 성공을 계기로 뷰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너웨어, 건강식품, 여성용품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패션 스타트업 관계자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북미 진출 경험을 보유한 브랜드나 유통사들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며 “현지 규제 대응, 마케팅 등 전반에서의 역량이 K웰니스 부문으로 이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녹색건축인증’ 대응제약, 10월 인니 ‘할랄 의무화’ 대응

7개 분야 기준 거쳐 우수 등급 받아
친환경 자재,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
CDMO 고객사 요구에 유연한 대응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의 친환경 건축 성과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서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에 대한 ‘녹색건축인증(G-SEED)’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녹색건축인증은 국가 공인 제도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자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물 전반을 종합 평가한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 오염물질 배출 저감,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도 핵심 심사 항목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 전경

/롯데바이오로직스

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등 7개 분야의 기준을 거쳐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부터 친환경 요소를 적극 반영해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 설비를 도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향후 조성 예정인 시설에도 친환경 건축 원칙을 확대 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은 생산 역량과 품질은 물론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생산 인프라를 고도화함에 있어 친환경을 적극 실천해 글로벌 CDMO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도 유연하게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식약처 등과 협력 기반 다져

대응제약이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 협력 체제에 동참하고 있다.

대응제약은 지난 7월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행사로 국내 제약·바이오 및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지원했다.

대응제약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처, 할랄제품보장청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협력 기반을 다졌다. 특히 대응제약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입 통관 요건, 성분 안전성 평가, 할랄 라벨링 및 의무화 일정 등 주요 제도를 확인하고 있다.

국내 식약처와 기업은 한국의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가 현지 등록을 통해 동일한 효력을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코트라(KOTRA) 무역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규제기관·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양국 민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대응제약

갖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식약처는 이미 인증을 받은 공장의 경우 현장 심사 부담을 줄이고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장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섰다.

대응제약이소운 허가특허센터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기조에 발맞춰 독보적인 제조 및 수입 인프라와 할랄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K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에이지투웨니스 ‘동결 건조’ 파우더로 피부결 보정·유분관리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피부결 보정과 유분관리 기능을 갖춘 신제품을 내놨다. 에이지투웨니스는 ‘클라우드 컴포트 파우더 팩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파우더를 처방한 메이크업 제품 특유의 들뜸과 답답한 사용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극저온 동결과 진공 건조 과정을 거친 ‘동결 건조 기술’을 적용했다. 유효 성분이 피부 접촉 시 매끄럽게 녹아들어 파우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답답함과 들뜸을 보완한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모공 수 32.1%, 모공 면적 17.2%, 피부결 6.6%의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피지 흡착 효과는 80%, 24시간 수분 보존력은 71.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카 콤플렉스, 알란토인, 비타민 E 등을 포함한 ‘스킨 퍼스트 포뮬러’를 활용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셀트리온 ‘옴리클로 300mg’ 유럽 발매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셀트리온이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맵)’ 제품군을 다양한 용량과 제형으로 구축해 처방 기반을 강화했다.

셀트리온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맵) 300mg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옴리클로 75mg·150mg를 출시한 데 이어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셀트리온은 옴리클로 300mg 출시로 환자 투약 편의성과 의료진 치료 선택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0mg 투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한 번의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옴리클로 300mg을 사전충전형 주사제(프리필드시린지)뿐 아니라 자동주사형 주사제(오토인젝터)로도 공급한다. 환자 상태, 투여 환경, 사용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옴리클로는 냉장 조건(2~8℃)에서 최대 2년, 실온(최대 25℃)에서는 최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오리지널 대비 긴 보관 기간으로 차별화됐다. 또 실온 보관 후에도 다시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재냉장 기능을 통해 의약품 운송·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보다 높은 효율성을 제공한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옴리클로 제품력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실적 성과를 올릴 계획이다.

셀트리온 하태훈 유럽본부장은 “옴리클로 300mg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며 “퍼스트무버의 시장 선점 효과와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지속하고 남은 하반기 유럽에서도 주요국 입찰 수주, 낙찰 물량 공급 개시 등을 순차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피클볼’로 스포츠 마케팅 확대

내년까지 대한피클볼협회 주관

대회·행사에 ‘비타 500 이온키’ 지원

광동제약이 러닝, 마라톤 등에 이어 신홍 스포츠 영역에서 브랜드 활동을 펼치며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대한피클볼협회와 공식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생활체육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피클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피클볼은 테니스·배드민턴·탁구의 장점을 두루 갖춘 라켓 운동이다. 지난 2016년 국내에 처음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고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27~30일에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 광동 비타 500 이온키 KPA 협회장배 in 오크밸리’가 열린다. 청소년부터 액티브 시니어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출전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 역시 대한피클볼협회가 주최·주관하며 광동제약이 후원한다. 광동제약은 순위에 따른 기본 시상 외에도 비타 500 이온키 브랜드명을 활용한 MVP, 활력상, 베스트퍼포먼스상 등 특별상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이온음료 ‘비타500 이온키’ 브랜드 가치를 알린다. 실제로 비타500 이온키는 수분과 활력을 동시에 채우는 기능을 갖췄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향후 2027년까지 대한피클볼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와 행사에서 비타500 이온키를 지원하며 파트너십을 이어간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대회 참가자들이 마음껏 경기를 즐기며 비타500 이온키로 활력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HUFs

Where Global Insights Meet
AI Innovation

융합일본지역학부
서인호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김예희

AI를 활용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한국외대의 트리플 시너지



글로벌캠퍼스 : 성장 엔진



서울캠퍼스 : 정체성 고도화



송도캠퍼스 : 국제화 플랫폼

송도캠퍼스 신설학부 모집

- 글로벌바이오 & 비즈니스융합학부
-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입학안내

02-2173-2500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IG D&A, 수출 우수 협력사에 지원금 23억 지급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수출 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며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LIG D&A는 지난 21일 수출사업에 기여한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성과 공유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금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LIG D&A 차상훈 기업지원본부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IG D&A



윤호영 카뱅 대표, 불법사금융 예방 캠페인 참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카카오�뱅크는 윤 대표가 서민금융진흥원이 기획한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뱅크



KCC, 서초소방서와 응급처치 교육 실시

KCC가 임직원의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안전한 기업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25일 KCC에 따르면 서울 서초소방서와 협력해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CC 직원들이 서초소방대원의 지도 아래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 /KCC



SH, 상생협력기금으로 중소기업 ESG 역량 키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SH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왼쪽 다섯번째부터)SH 황상하 사장, 대중기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BBQ, 장애인 복지시설 찾아 보양식 전달

제너시스BBQ그룹은 장애인 복지시설 '엘리엘동산'에 삼계탕 110인분과 수박 10통을 전달하고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시설 '엘리엘동산'을 찾은 BBQ 임직원들의 모습. /제너시스BBQ그룹

LG전자, 메트로폴리탄 명화 품고 '아트TV' 영토 확장

갤러리 플러스서 명화 100점 공개 플랫폼 등 TV 수익구조 전환 가속

LG전자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트 콘텐츠 서비스 'LG 갤러리 플러스(LG Gallery+)'에서 미술관 소장 명화 100여 점을 제공한다. TV 판매 이후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트 콘텐츠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5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번 협업으로 추가되는 작품에는 에두아르 마네의 '아르장티유 정원의 모네 가족', 윌리엄 메리트 체이스의 '해변에서', 세브린 로젠의 '꽃과 과일이 있는 정물' 등이 포함됐다. LG 갤러리 플러스는 독자 스마트TV 플랫폼 webOS에 탑재된 서비스로, TV 화면을 디지털 캔버스로 활용해 실내 공간을 연출하



LG전자가 아트 콘텐츠 서비스 'LG 갤러리 플러스'에서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명화를 제공한다. /LG전자

도록 설계됐다.

LG 갤러리 플러스는 지난해 8월 출시됐다. 무료 라이트 버전은 150개국 이상에서 제공되며, 프리미엄 콘텐츠를 포함한 정식 버전은 한국과 미국, 유럽 등 23개국에서 webOS페이를 통한 월 구독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국 내셔널갤러리 런던,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협업한 작품에 사치아트의 현대

미술, 게임 일러스트, 영화 포스터, 자연 경관 사진을 더해 5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했다.

하드웨어 라인업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CES2026을 앞두고 미술관 큐레이터와 협업해 색과 밝기를 조정하는 '갤러리 모드'를 적용한 LG 갤러리 TV를 공개했다. 이어 5월에는 올레드 에보 AI W6 월페이퍼 TV와 올레드

에보 AI G6, 갤러리 TV AI로 구성된 아트 TV 라인업을 출시하고 12월 31일 까지 구매 고객에게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전략 전환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분기 MS사업본부 매출은 5조 1100억원, 영업이익은 2190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4.4%에서 4.3%로 전환했다. LG전자는 올레드와 QNED,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비중 확대와 webOS 플랫폼 매출 증가를 개선 요인으로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 규모도 커졌다. 앞서 LG전자는 webOS 플랫폼 사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40% 성장해 2024년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LG 채널은 33개국에서 4000개 이상 채널을 운영 중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서 만나는 현대미술

내달 23일까지 '롯데아트워크' 회화·조각 등 다양한 장르 전시

롯데백화점이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점과 잠실점, 인천점에서 '롯데아트워크'를 열고 총 6개 전시를 선보인다.

롯데아트워크는 미술 전시와 문화 예술 행사가 집중되는 9월을 맞아 백화점에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아트 프로젝트다. 회화부터 조각, 사진, 디자인까지 다양한 장르의 전시로 구성했다.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개인전도 열린다.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된 심문섭의 개인전은 9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잠실점에서 진행된다. 김상열 개인전은 8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본점, 권오상 개인전은 같은 기간 잠실점에서 열린다. 인천점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김우진 개인전을



'롯데아트워크' 기간 동안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인천점에서 선착순 증정하는 '롯데아트워크 기프트팩' /롯데쇼핑

선보인다.

본점 9층에서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아티스터리스트 요시다 유니와 사진작가 김영준이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협업한 '페이스 투 페이스' 전시가 열린다.

조각 전시도 마련했다. 잠실 에비뉴엘에서는 권오상의 '존재의 조각들'을, 인천점에서는 김우진의 '누구에게나, 유토피아展'을 각각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그린푸드, 충남 농산물 500톤 소비

'모두의 상생' 첫 시범사업

현대그린푸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첫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나선다.

현대그린푸드는 충청남도청과 함께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는 기업과 지역 농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서산 양파 280톤, 부여 쌀 200톤을 포함해 밤·은행·대추·참쌀 등 충남산 농산물 약 500톤을 매

입한다. 이를 전국 650여 개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25일에는 서산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임직원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충남산 농산물을 활용한 '충남의 맛 연잎밥'을 제공했다. 이후 카라멜라이징 양파 돼지고기볶음, '양파 카레라이스', '양파채워짐 크림파스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전국 사내 카페 140여 곳에서는 충남산 밤을 활용한 밤 미숫가루와 건강 차 '도라침'을 판매하고,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베즐리에서는 서산 쌀가루를 활용한 마들렌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24일 부천 세종병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두번째줄 왼쪽 다섯번째부터)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신지아 선수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캄보디아 환자 및 가족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국민銀, 캄보디아 심장병 환자 치료

6명 국내 초청해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캄보디아 심장병 환자 6명을 국내로 초청해 무료 수술과 회복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지원사업'은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수술 기회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이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구세군과 함께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3명의 어린이에게 건강한 심장과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해왔다.

이날 부천 세종병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KB금융그룹이 후원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신지아 선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아들에게 학용품 세트와 책가방, 인형 등을 전달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특히 올해는 사업 15주년을 맞아 과거 수술 지원을 받은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치료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가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장기간 이어온 지원의 의미를 되새겼다.

/안상미 기자 smahn1@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눠주기식’ 균형발전은 이제 그만



한 용 수 의
돌직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블랙홀에 빠져든 지 오래다. 인자와 자본, 신산업이 모두 수도권으로만 쏠린다. 지방은 ‘소멸’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처지다. 역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세웠다. 지방 투자 기업엔 막대한 보조금을 줬다.

성적표는 참담한 실패다. 지역의 버팀목이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맥을 못 춘다. 대중국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수요 감소 탓이다. 결국 연이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기업 R&D 비용의 80% 이상은 여전히 수도권에 쏠려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매년 고향을 떠난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역 경제 생태계 전환을 위한 초광역 거점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핵심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과 ‘정책 자원의 분산’이다.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지나치게 공평한 배분에만 집착했다. 시도 단위로 타깃 산업을 3~5개씩 쪼개 지정

했다. 기회발전특구마저 지역별 면적 상한에 맞춰 잘게 나뉘었다.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임계 규모(Critical Mass)’를 갖추지 못했다. 낙후 지역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더 주는 설계는 역설적으로 거점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권역별 거점에 강력한 성장엔진을 달아 줘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5극3특의 성장엔진은 이름만 바꾼 사업이 되어선 안된다.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배후 산업공간, 거점 대학의 인재 양성이 한데 얹혀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융합하는 산업 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기능적 분담과 공간적 집중도 필요하다. 대기업 연구소나 청년 선호 창업·정주 기능은 지방 광역시 등 권역 중심도시에 집중해야 한다. 인재 유출을 막을 ‘인구 댐’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반면 대규모 생산기지는 광역시 배후 시·군에 배치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한다. 중심도시와 배후공간을 ‘60분 교통체계’로 묶어 거대한 단일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고숙련 인재가 지방에 남는다.

정책의 패키지도 필요하다. RISE 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과 거점국립대 육성, 지역 R&D 자금, 특구 지정을 개별 사업으로 흩뿌려선 안 된다. 지역 투자 앵커기업의 수요에 맞춰 일괄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로 전환해야 한다.

행정통합과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도 있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뜻을 모아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점은 매우 상징적이고 긍정적인 이정표다. 이제는 출범한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적극 활용해 투자 입지와 교통 인프라를 윈스톱으로 조정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예산 집행액이나 MOU 체결 금액 같은 보여주기식 지표는 의미가 없다. 프로젝트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R&D 기능이 실제로 이전됐는가.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활성화됐는가. 실질적인 산업구조 개선 효과가 유일한 잣대여야 한다.

지방의 소멸은 곧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소멸이다. 균등 분산이라는 온정주의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초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강력한 성장엔진을 태워야 한다.

/세홍=hys@metroseoul.co.kr

유전자 소프트웨어 시대… 제약바이오와 인간



기 지 정 하
 (유통&라이프)

최근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핵심 모티브는 놀랍게도 유전자 억제 및 편집이다. 주인공 피터 파커는 거미 DNA의 돌연변이로 통제 불능에 빠진 자신의 체내 생물학적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 유전자 억제 칩을 발명한다.

과거 슈퍼히어로의 무기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나 토르의 망치 같은 물리적 하드웨어였다면 이제는 체내 DNA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로 혁신 영역이 이동했음을 대중문화가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의 전환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오늘날 바이오 기술은 물리적 외형을 깎아내거나 독성 약물

시대를 지나쳤다. 생체 신호 전달 체계와 유전자 프로필을 직접 탐색하고 재설계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

최근 빅파마 모데나는 mRNA 기반 맞춤형 항암 백신 임상 소식을 알렸다. 암 환자의 암세포 돌연변이 정보를 분석해 신원 정보를 추출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환자만의 암세포 표식을 유도하는 mRNA를 제작한다. 체내 면역세포는 이 mRNA가 만들어낸 가짜 표식을 통해 항암 기전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약물이라는 물리적 폭탄을 투척하는 대신 체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식욕을 억제하는 데 그쳤다면 ‘K비만약’은 체지방 연소와 동시에 제지방(근육량)을 보존하도록 체성분 비율을 정교하게 프로그래밍한다. 미용의료 분야 또한 세포 본연의 재생 메커니

즘을 부팅시키는 생물학적 접근으로 탈바꿈했다.

다만 인간 유전자까지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시대가 될수록 더욱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유전자를 고치고 생물학적 한계를 보완한다고 해서 인간 본질까지 바꿀까.

유전자 편집 기술로 피터 파커의 돌연변이 징후를 통제할 수는 있지만 타인을 위해 위험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선택은 피터 파커의 몫이다. 돌연변이가 만든 괴물이든 첨단 히어로든 중요한 본질은 피터 파커의 양심에 따라 달라진다.

차세대 신약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완벽하게 수정할 수 있다 한들 그 기술을 움직이고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다. 첨단 바이오의 최전선에서 ‘인간성’이라는 본질을 끊임없이 되짚어봐야 할 이유다.

/mlee236@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6일 (음 7월 1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60년생** 천리 밖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72년생** 금전거래를 피하세요. **84년생** 인간관계를 조심하세요.



49년생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61년생** 배신을 당할 우려가 큰 법입니다. **73년생** 뜻을 이루기는 어렵겠습니다. **85년생**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50년생 추진함은 있으나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겠습니다. **62년생**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74년생** 이익은 없고 재물만 손해보게 됩니다. **86년생**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51년생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누구랑 의논하지 마세요. **63년생** 동쪽은 나쁜 일이 가득합니다. **75년생** 물이 집으로 들어올지라도 그로 인해 해를 입게 됩니다. **87년생** 길한 하루입니다.



52년생 사고자 해도 쉽게 나가기 어렵겠습니다. **64년생** 여행을 통해 머리를 비우고 맑게 하도록 하세요. **7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88년생** 끝까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53년생 권력에 아랑곳하지 말고 생활하도록 하세요. **65년생** 좋은 사람이 도와 줄 것입니다. **77년생**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89년생**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54년생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66년생**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78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서 찾도록 하세요. **90년생**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55년생 멀리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보세요. **67년생**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79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9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넘치고 즐거움도 큼니다.



56년생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립니다. **68년생** 귀하만을 고집하지 마세요. **80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합니다. **92년생** 세상에는 귀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57년생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81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납니다. **93년생** 다 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58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70년생** 이익이 넘치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2년생** 용돈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년생**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남들에게 베푸세요.



59년생 기쁜 일이 생깁니다. **71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83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95년생** 동북 방위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김상회의四季 합법과 불법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필자가 법을 1학년 2학기 공부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아주 조그만 지식이 생기다 보니, 법을 몰라 고민하는 주변에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내용들이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정리되었다. 예를 들어 보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타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될까? 고민하게 된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물리는 때도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행동이라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때 중요한 기준은 의외이기도 하다.

녹음하는 본인 목소리가 그 녹음에 들어가느냐 하는 점이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 녹음이 아니다. 채무자와 통화하면서 언제 돈을 갚을 것인지 묻고 그 통화를 녹음했다면 적법한 녹음이다.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통화 당사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배포하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행동했다가는 도리어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판형

결란스도쿠110

종이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9	6	2	7	8
8							1
2		1					
			8			1	5
				6			
9		4			7		
						5	7
5							4
7	1	8	5		2		6

9	6				2			3
				3				8
		2		4		7		
6							7	
		9				3		
	7							2
		1		5		8		
8					7			
5			4				6	7

9	6	2	7	9	8	1	2
7	2	8	1	2	9	6	9
2	1	9	8	6	9	2	7
9	8	2	9	1	7	2	9
2	6	2	9	7	9	8	1
9	7	1	6	2	8	9	2
6	9	7	9	8	2	1	9
1	9	7	9	2	2	6	8
8	2	2	9	1	6	9	7

2	9	2	1	8	7	9	6	9
9	9	1	2	6	2	9	7	8
7	6	8	9	9	1	2	1	
2	8	9	9	9	6	9	2	1
1	7	9	9	9	2	6	8	2
6	2	9	8	2	1	7	9	9
9	9	2	6	7	8	2	1	9
8	2	6	9	1	9	2	9	7
9	1	7	2	2	9	8	9	6

내년도 수시접수 내달 7일 시작… “공통원서 미리 챙겨야”

4년제 대학별 3일 이상 접수 마감 직전 접속 몰려 오류 우려
통합회원 가입·공통원서 사전 작성
대교협, 내달 5일까지 집중상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접수 마감 직전 지원자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지연에 대비해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5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년제 대학의 경우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기간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은 수시 1차 모집을 9월 7일부터 30일까지, 2차 모집은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수험생은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



지난 7월 23~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별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메트로신문

면 해당 대행사를 이용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공통원서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환불 계좌,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한 번 작성한 원서는 여러 대학 지원 때 활용할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하다. 대교협은 특히 원서접

수에 사용할 PC에서 접수 대행사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마감 시간에 접속자가 몰릴 경우 원서 작성이나 결제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졸업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 2005년 2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고교를 졸업한 지원자는 온라인 생성신청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학생부 자료를 생성·신청해야 한다. 수시모집 신청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9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대교협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2027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과 전년도 입시결과, 성적산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AI 기반 대입 챗봇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수시모집을 앞두고 대입상담도 확대한다. 대입상담센터는 다음 달 5일까지 집중상담을 실시하며 전화상담은 평일과 토요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현직 고교 교사 500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이 대학별 전형정보와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토대로 상담을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고양시

청년과 행정 잇는 ‘서포터즈’ 출범

고양시가 청년의 시선으로 지역 청년정책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청년 서포터즈'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고양시는 '2026 내일꿈제작소 청년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청년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고 고양시가 추진하는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했으며, 모집과정에서 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한다. 내일꿈제작소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고 주요 행사를 현장에서 취재하는 한편, 청년들의 관심사와 수요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16개 시도교육감, 교부금 개편 반발… 교육부 회의 보이콧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촉구
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 요구
개편안 원점 재논의 촉구하며 공동대응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요구하는 한편, 첫 대응 조치로 오늘(25일) 예정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 불참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수요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 비용은 지속되는 데다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돌봄·안전, 학생 마음건강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증가한다고 설명하는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학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교육감

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 집단행동으로는 이날 예정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이번 보이콧은 교육감을 단순한 정책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방식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남양주시

교황 마제성지 방문 추진

최현덕 시장 바티칸서 친서 전달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교황 레오 14세의 남양주 '마제성지' 사목 방문 성사를 위해 바티칸을 찾았다. 남양주시는 24일(현지 시간) 최현덕 시장과 김용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바티칸에서 교황청 성직자부장관 유홍식 추기경을 예방하고, 교황의 남양주 마제성지 사목 방문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성가정(聖家庭) 순교 성지'로 알려진 마제성지의 역사·종교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순례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마제성지는 한국 천주교 초기 평신도들이 학문 탐구를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는 역사와 관련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647만명 찾은 '차 없는 잠수교' 마지막 축제

내달 6일 마지막 시즌 개막
10월 25일까지 매주 운영

누적 방문객 647만명을 기록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다음 달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열린다. 내년 하반기 잠수교 전면 보행화를 앞두고 현재 형태로 열리는 마지막 시즌이다.

서울시는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축제는 2022년 하반기 시작됐다. 방문객은 2022년 52만명, 2023년 200만명, 2024년 150만명, 2025년 128만명, 올해 상반기 117만명으로 누적 647만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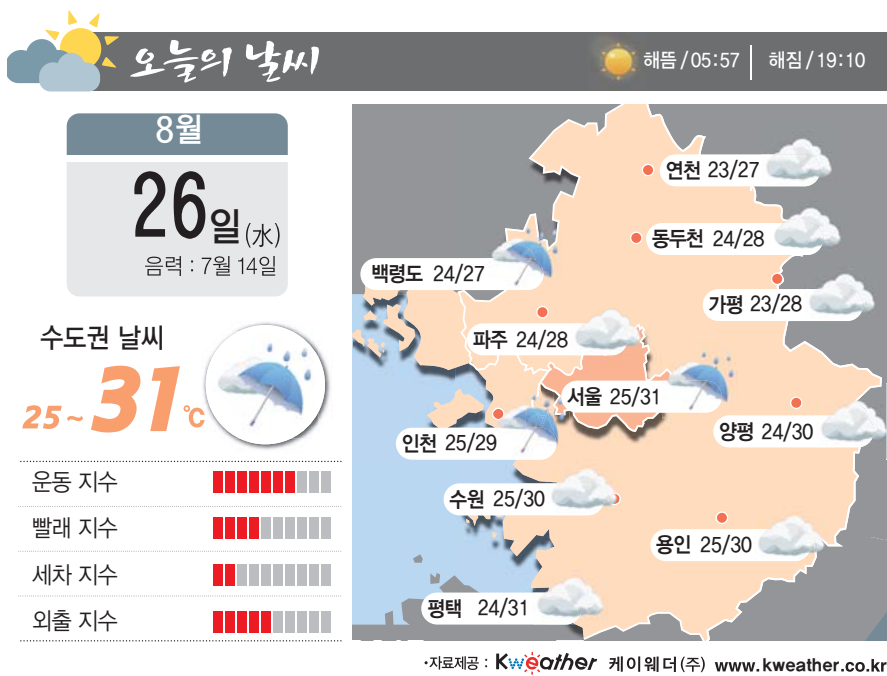
하반기에는 매주 다른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월 6일에는 반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총 800명이 참여하는 물총놀이 '잠수교 워터워즈'가 열린다. 13일에

는 대학생 동아리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20일에는 줄다리기와 훌라후프 등을 포함한 가을 운동회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러시아, 파나마, 카자흐스탄 등 6개국의 전통 공연과 율놀이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0월 4일에는 잠수교 남단부터 북단까지 100여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잠수교 미식로드'를 운영한다. 한국과 미국, 베트남,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판매하며 동시에 최대 8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취식 공간도 마련한다.

/이현진 기자



▲美, 망명 신청자 상용·관광비자 20만건까지 축소 추진 /사진 뉴시스
▲AI주 하락에 무너진 24세의 헤지펀드…美 SEC 조사 착수

▲머스크 “내년 4분기 AI 위성 첫 발사… 2028년엔 상당한 규모”
▲“아이 낳으면 7600만원” 출산율 0.87 사상 최저, ‘초강수’ 꺼낸 싱가포르

▲네타냐후, 美의 이란 경제제재 환영… “잔혹한 정권, 대가 치러야”
▲“집권하면 유로존·생권협정 탈퇴”… ‘지지율 1위’ 독일 우파 정당 폭탄선언



K-라면
수출 신기록
고용·생산 혁신
L1



Life

국내 뷰티업계
웰니스 육성
북미 경쟁력 강화
L2



기술혁신에 현지화로 ‘날개’… 혜안으로 글로벌 전력 정조준

CEO 와칭

구 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기술 선점과 현지화를 중시하고 인재와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기업 성장의 핵심으로 삼아 온 경영인이다. 특정 국가와 단일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해외 시장을 함께 넓히며 LS일렉트릭의 글로벌 전력기업 도약을 이끌고 있다. 글로벌 사업에서는 전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생산·영업·서비스를 현지 수요에 맞추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을 병행했다. 특히 노후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어나는 북미에 생산·연구개발(R&D)·설계·서비스 거점을 구축하며 현지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 같은 사업 다각화와 해외 시장 확대는 실적으로 이어졌다. LS일렉트릭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조5770억원, 영업이익은 17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2%, 64.4%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북미 매출도 분기 최대인 약 4000억원을 기록했다. 미래 실적을 가능할 수 있는 수주잔고 역시 2분기 말 7조원으로 전분기보다 약 1조4000억원 늘었다.

구 회장은 북미 현지화와 미래 전력기술 육성을 이어가 2030년 매출 10조원과 해외 매출 비중 70%를 달성하고 미국 ‘톱4’ 전력기업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LS일렉트릭 유타’에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가운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오른쪽 세번째) 등이 지난 2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렉스 코리아 2026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LS일렉트릭



대학 교수서 기업인으로 경영 참여
기술 육성, 글로벌 사업 확대 이끌어
해외매출 비중 30%→50%로 확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에 북미 공략
美 거점 구축… 지난해 매출 1조 달성
매출 10조·해외매출 비중 70% 목표

초고압·AI·DC 등 미래동력 육성
전력계통 전반 포트폴리오 다각화

핵심자산은 ‘인재’… 신규 채용 지속
수평적 팀 문화 ‘애자일’ 정착 앞장

◆구평희 전 E1 명예회장 삼남…교수 거쳐 경영 참여

구 회장은 1957년 서울에서 구평희 전 E1 명예회장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중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업을 마친 뒤에는 대학 강단에 섰다. 1993년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됐으며 1997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경영과 기업 전략을 가르쳤다. 기업 경영에 참여한 것은 2005년이다. LS산전 관리본부장 부사장으로 입사한 뒤 2007년 관리본부장 사장, 2008년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 사장, 2010년 대표이사 CEO 부회장을 거쳤다. 2013년 LS그룹 산 전사업 부문 부회장에 이어 2015년 LS산전 대표이사 CEO 회장에 올랐다. 2020년 사명이 LS일렉트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대표이사 CEO 회장을 맡고 있다.

구 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뒤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사업 확대에 힘을 쏟았다. 취임 초기 30% 수준이던 해외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미국 UL 인증 취득과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 진출 등을 추진해 사업 영역

을 넓혔다.

전력·산업기술 분야의 대외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초대 회장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북미 매출 1조원 돌파…텍사스·유타 거점 확대

구 회장이 글로벌 사업의 핵심 시장으로 선택한 곳은 북미다.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에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미국에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판매 확대에 맞춰 생산과 연구개발, 설계, 시공, 기술 지원, 애프터서비스까지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텍사스주의 ‘베스트럽 캠퍼스’와 유타주의 ‘LS일렉트릭 유타’를 양대 거점으로 구축했다.

지난해 4월 준공한 베스트럽 캠퍼스는 배전 전력기기 생산을 비롯해 연구개발과 설계,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북미 사업 지원 거점이다. 유타에서는 2022년 인수한 현지 배전시스템 기업 MCM엔지니어링Ⅱ를 기반으로 배전반 생산과 배전시스템 설계·시공 역량을 확보했다.

LS일렉트릭은 유타 거점에 1억6800만달러(약 2500억원)를 투자해 배전반 생산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릴 예정이다. 공장 규모도 1만3223㎡(약 4000평)에서 7만9338㎡(약 2만4000평)로 6배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생산동 3개를 추가로 건설한다.

두 거점을 중심으로 북미 공급체계를 강화해 전체 해외 매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단순 제품 수출을 넘어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까지 현지에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북미 전력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자리 잡을 방침이다.

◆저·중압서 AI·DC·ESS까지…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구 회장은 2005년 LS일렉트릭의 전신인 LS산전에 합류한 이후 저압·중압 배전기기의 경쟁력을 초고압 변압기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으로 확장했다. DC 전환 기술과 디지털 전환(DX), ESS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저압·중압 배전기기와 배전반, 초고압 변압기를 아우르는 전력 계통 전반의 솔루션 역량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과 DC 전환 기술, DX, ESS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에는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고효율 배전 솔루션과 전력관리시스템을 공급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배전시스템은 일반 배전 사업보다 기술 진입장벽과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DX를 기반으로 고객의 전력·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능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과 에너지 최적화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의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확산으로 DC 전환이 빨라지는 데 맞춰 관련 제품군도 확보했다. DC 차단기와 DC/DC 컨버터, 전력변환장치(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직류 전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주요 제품을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저압직류배전(LVDC)용 차단·개폐기는 글로벌 톱3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태양광과 ESS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센터의 800V DC 아키텍처 전환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DC 제품군을 활용한 ESS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천안 DC팩토리에서 차세대 ESS용 PCS인 ‘G2’ 양산을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채용·보상 확대하고 권한 분산…인재 중심 경영

구 회장이 기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으로 꼽는 것은 인재다. 사업을 주도할 우수 인재 확보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2006년부터 공채 제도를 유지하며 젊은 인재를 꾸준히 채용해 왔다.

LS일렉트릭은 매년 사무직 인력의 10%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에는 비정규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성도 높였다.

북미 전력·데이터센터 사업 확대에 맞춰 임직원의 성과와 기업가치를 연계한 보상 체계도 강화했다.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스톡옵션을 지급해 사업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한다.

구 회장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애자일(Agile)’ 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수평적인 팀 중심으로 전환하고 각 조직에 권한을 분산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구 회장은 “기업 성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사람이며 사업을 주도할 우수 인재 확보가 곧 기업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축구협회 프로심판평가협의체 개편…비심판 출신 40% 이상 확대
▲‘105경기 재편성’ 2026시즌 KBO 정규시즌 10월 7일 종료
/사진 뉴스시스

▲샌디에이고 송성문, 타율 0.202 남기고 마이너 리그 강등
▲이창동 ‘가능한 사랑’, 美 아카데미상 한국 대표로 출품

▲22개국 46명 작가 부산으로…2026 부산비엔날레 29일 개막
▲신시컴퍼니, 글로벌 신작 뮤지컬 ‘네로’ 런던 트라이아웃 개막